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14:00~18:00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주 최 : 지역발전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머 리 말

최근 들어 전원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근대화 이후 이촌향도형 이동으로 줄곧 인구 유출을 겪은 농어촌의 지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자체들 중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지원 시책을 외형적으로 확대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귀농·귀촌이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농식품부만의 과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도시민들이 농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료집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놓고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와 토론 내용을 모은 것이다. 정책 담당자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들 뿐 아니라,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 농어촌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는 귀농인 등이 그동안 느낀 경험들을 싣고 있다. 부디 여기에 담긴 논의들이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차 례

정책세미나 개요	1
주제 발표	3
제1주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5
1.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	7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9
3.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 및 애로사항	13
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5
제2주제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 사례와 향후 과제	25
1. 강진군 일반현황	28
2. 추진 배경	33
3. 추진 내용	34
4. 강진군 귀농 현황	36
제3주제 귀농·귀촌 준비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	39
1. 생애 첫농사로 얻은 교훈	41
2. 뿌리내림의 진통-농촌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45
3. 자식같은 농산물이라도 팔아야 산다-농촌에서의 생존전략	48
4. 썩지 않는 마늘 신화를 만들어내다	50
5. 귀농후배가 제시한 새로운 판매전술-꾸러미 운동	52
6. 긴호흡이 필요한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54
< 후기>	57

제4주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59
1. 은퇴 후의 삶: 도시 VS 귀촌	61
2. 귀촌하려면 얼마의 돈이?	67
3.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귀촌하기	73
4. 귀촌의 시작은 귀농교육	76
5. 귀촌지역 선정하기	79
6. 집과 일자리구하기	84
7. 지역민과 하나 되기: 아가잘있나?	86
8. 고부가가치 농산업 개발	90
9. 3년 안에 연봉 1억 만들기 8계명	93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101

표 차 례

표 1-1. 도시민 농산어촌 거주 의사	8
표 1-2. 농림수산물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2011)	10
표 1-3. 귀농·귀촌 지원 주체별 역할	11
표 1-4. 이주 단계별 애로사항 및 대응과제	15
표 1-5. 체류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19

그림 차 례

그림 1-1. 읍·면별 향촌 인구(2009)	8
그림 1-2. 연도별 귀농 가구	9
그림 1-3. 일본 히단시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	18
그림 1-4. 경기도 클라인가르텐 기본 배치	19
그림 1-5. 클라인가르텐 비교 사진	20

정책세미나 개요

- 일 시: 2011. 8. 30(화) 14:00 ~ 18:00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지역발전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후 원: 농림수산식품부

□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회식	개회사 : 오세익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 사 : 홍 철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14:15~16:00	『제1부』 주제발표	
	주제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주제 2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 사례와 향후 과제 /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주제 3	귀농·귀촌 준비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 / 이환의 (충남 홍성군 홍동면 귀농인)
	주제 3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
16:00~16:15	중 간 휴 식	
16:15~18:00	『제2부』 종합토론 (좌장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지역재단 이사장)	
	토 론	• 박용범(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 오성섭(예비 귀촌인·기업은행 반포자이PB센터장) • 조원희(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장) • 채상현(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장) • 최혁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구(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박선우(지역발전위원회 과장)
18:00~19:30	폐회 및 만찬	

주 제 발 표

제1주제발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1.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

1.1. 전원지향형 라이프스타일

- 라이프스타일 이주 시대: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C일보 아침논단(’11.8.3)”
 - 서구 중산층, 도시 떠나 전원行… 노년층에서 30~40대로 확대
 - 일 중독 벗어나 삶의 품위 중시… 인생의 방향 감각 회복 위해
 - 자신을 위한 時·空間 확보하는 ‘심리적 이주’는 어떨까
- 다자연 거주(일본의 국토계획)
 - 자연이 풍부한 농산어촌에서 자연과 어울리며, 자연에서 배우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라이프스타일).
 - 일시적인 체재, 반정주, 완전정주형태가 있음.
- 복수지역거주(Multi-habitation) 희망자 증가
 - 복수지역거주: 일 또는 여가, 노후의 삶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삶의 방식
 -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 거주지는 대도시에 두고, 부 거주지를 전원지역에 두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
 - 도농교류 형태의 일시 체류형
 - 체류형 주말농원을 활용한 반정주형
 - 전원주택 등에서의 정주형
 - 완전 이주 전단계로 체험을 겸하여 일시적으로 복수지역 거주자 증가

1.2. 도시민의 전원 거주 의사

-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2011년 농어민신문 조사)
 - ‘도시의 경쟁적인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71.1%)

- ‘생계수단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15.5%)
- ‘자녀교육을 위해’(11.3%)

표 1-1. 도시민 농산어촌 거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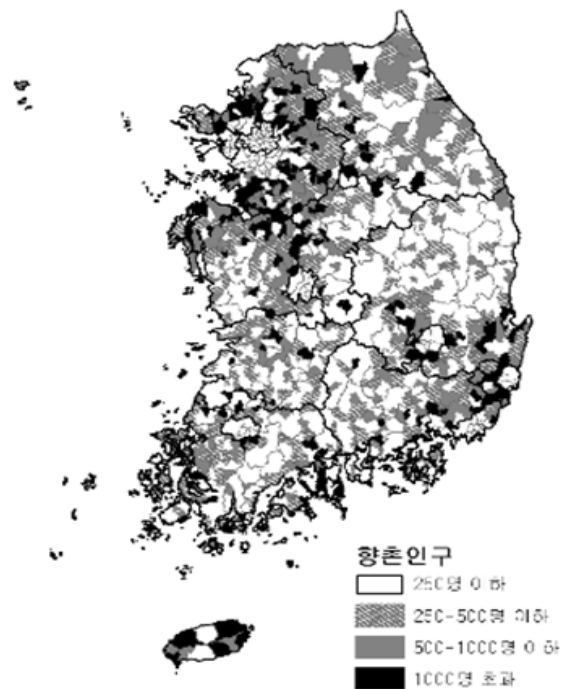
2008년 (KREI 조사)	2010년 (KREI 조사)	2011년 (농어민신문 조사 수도권주민대상)
65.8 %	47.1%	74.1%

1.3. 향도형에서 향촌형 인구이동

○ 인구이동 총량

- 향촌형(동→읍·면)이 향도형(읍·면→동)을 앞지른 상황(2009년 기준)
 - ♦ 향촌형 이동인구 906천 명 vs 향도형 이동인구 836천 명

그림 1-1. 읍·면별 향촌 인구(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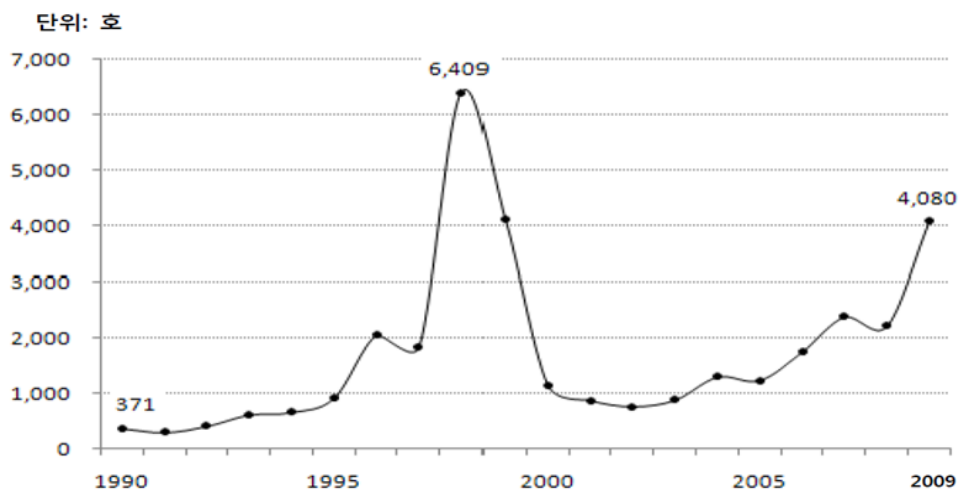
- ※ 20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 이주까지 귀농·귀촌으로 포함할 경우
 • 향촌형 930천 명 vs 향도형 855천 명

1.4. 귀농의 증가

○ 최근 귀농가구 다시 증가

- 도시부의 일자리 제약, 가치관의 변화 반영
- 2010년 기준 귀농가구 4,067호
- 신규 취농자 중 귀농자 비중 점차 증대(2001년 6%, 2009년 30%)

그림 1-2. 연도별 귀농가구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2.1. 지원 주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 귀농·귀촌 정책은 지원 주체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

간기관으로 구분됨.

- 중앙정부에는 농림수산물부와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이며, 지자체로는 다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고창, 진안, 봉화, 순창 등이 있음.
-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등이 있음.

○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농지 및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룸.

○ 2011년 현재의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표 1-2>와 같음.

표 1-2. 농림수산물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2011)

담당 부서	사업명	주요 내용
농어촌정책국 경영인력과	농산업인턴제 (고용노동부이관)	●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 실습 지원 ● 귀농교육 과정 이수 후 귀농 희망자 대상
	컨설팅 및 멘토링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선도농가 등이 귀농 초기 단계의 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귀농인의 집 조성(종료)	●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준비
	농업창업 자금 지원	● 귀농교육과정 이수자가 농지, 시설 및 설비, 농기계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융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	●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융자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농촌 지자체가 도시민 이주를 지원하는 연성적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 ● 지역 홍보,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교육훈련,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농업 및 농산업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원마을 조성	● 20호 이상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표 1-3. 귀농·귀촌 지원 주체별 역할

중 앙 정 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정책국 경영인력과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지역개발과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업창업자금지원 - 경영컨설팅 및 멘토링 - 정착자금지원 - 교육훈련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 농산업인턴제 (고용노동부 이관)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지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 ○ 전원마을 조성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 은퇴귀농연구 ○ 귀농승계가구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창, 강진, 봉화, 영천 등	경기도청, 전북 진안·순창 등	한국농어촌공사
○ 귀농자지원조례제정 - 귀농위원회 설치 - 교육훈련과 경비보조 - 귀농관련사업보조융자 - 빈집수리 등 시설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 개소당 예산: 3.2~10억 원 - 화천, 양구, 서천, 금산, 진안, 남원, 고창, 곡성, 안동, 남해 등 ○ 홍보, 컨설팅, 교육행사 ○ 일자리추진, 주거정보제공 ○ 출향인사과약 등 지원	○ 농어촌종합정보포털 (www.nongchon.or.kr) - 귀농·귀촌 - 농지은행 - 주택정보 - 그린투어 - 투자유치 등
민 간 기 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각종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귀농·귀촌프로그램지원 ○ 지역귀농지원센터 지원 ○ 귀농통문 책자 발간	○ 도시민 생활농업교육 ○ 귀농 귀촌 교육 ○ 조경수재배과정 교육	○ E-tutor, uirturn시스템 ○ 교육과정운영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한국농업대학 참여

2.2.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

○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실시

- 귀농·귀촌 조례 제정 지자체 계속 증가
 - 2011년 8월 현재 74개 지자체(4개 도, 70시·군)
 - 교육훈련지원(67), 빈집수리지원(55), 소득사업지원(45), 자녀학자금(40), 귀농정착자금(24), 의료지원(22), 농지임차/구입자금(10), 이사비용(5)
- 도시민 유치 시범사업 추진. 정부의 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 자치단체 자체사업 실시

- 자체 예산으로 출산 육아지원, 자녀 교육비 부담, 귀농인 성공정착 지원 사업 시행
- 출향인사 등 귀향 잠재자의 정보 관리, 빈집정보 등 제공
- 행복마을(전남), 귀향마을(남해) 등 주거단지 조성

< 참고: 진안군의 귀농·귀촌과 사회적 일자리 >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는 대표적 사례

- 총 500명 귀농·귀촌 가구 중 100여 명 사회적 일자리 종사
- 기존 귀농·귀촌인을 통해 새로운 귀농·귀촌자가 유입
- 행정과 민간조직 연계하여 효율적 지원, 선배 귀농·귀촌인의 역할 중시
 - 행정: 귀농·귀촌활성화센터
 - 민간조직: (사)뿌리협회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명)
마을 간사(신활력사업)	15
마을 사무장	5
산촌매니저(산림청)	3
무진장좋은마을네트워크(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13
사회적기업으로는 농촌복지센터 노인 간병(노동부)	30
지역자활센터의 나눔푸드 (도시락사업, 무료배달서비스 및 위탁 판매, 뷔페 등)	30
도농교류센터귀농·귀촌센터(진안군 예산)	6

3.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 및 애로사항

3.1.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

- 다양한 형태의 도시민 전원 수요 대응 미흡
 - 주로 귀농자 대상의 교육 및 자금 지원 정책에 치중
 - 일시 체류형, 반정주형, 정주형 등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 수도권 주변의 귀촌 수요가 높은 지자체의 대응 태세 부족

3.2. 전원 지향에 대한 희망과 행동의 괴리

- 귀농·귀촌 희망자 중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수는 극히 제한
 -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 중 실제 귀농자는 20% 정도
- 만만치 않는 자금 소요
 - 수도권에서의 전원생활 초기 비용 3억 이상
 - 귀농 시 초기 비용으로 약 2억 정도 소요
 - 피산군 평균 귀농 자금 1억
 - 생계형 귀농 시 2~3년 수익 발생 어려움
- 귀농·귀촌 후 정착률 저조
 - 정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 발생
 -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떠나는 사람도 다수
 - 기대했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정책 불신

3.3. 도시민의 농산어촌 이주 주저 요인

- 가족(아내, 자식, 부모)의 반대
-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보장되지 않음.
-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음.
- 자녀 교육이 마땅치 않음.
- 구매, 여가 문화 등의 생활시설이 부족함.
- 지역주민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음.
- 공공교통수단이 충실하지 못함.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빈집, 토지 등의 정보가 충분치 못함.
-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함.

3.4. 도시민 유치 단계별 애로사항 및 대응과제

-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예비단계-정주실행단계-정착단계”의 절차로 이루어 지는데,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이주 단계별 애로사항 및 대응과제

단계	애로사항	대응과제
예비 단계	- 이주지에 관한 정보 수집 - 현장 답사, 예비 체험 기회 필요 - 가족 동의 - 필요한 교육 이수(귀농 귀촌·교육, 기타 직업훈련)	○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빈집, 주택 및 토지 매물, 농지 등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 잠재적 귀농·귀촌 대상자 정보 수집 관리 - 귀농·귀촌 홍보 활동 ○ 귀농·귀촌 희망자 초청 체험 행사 진행 ○ 귀농·귀촌 백서 및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정주 실행 단계	- 토지 및 주택 일자리 알선 - 영농상담, 영농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원스탑 행정서비스 필요 -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애로 - 농사시설(하우스 등) 설치 지원 요망 - 빈집수리비 지원요망	○ 도시민 이주자 지원사업 체계화 ○ 지역정착 매뉴얼 발간 ○ 귀농·귀촌학교 운영 - 정착교육 및 기술교육 실시 ○ 행정지원 전담조직 필요
정착 단계	- 이주자의 지역사회 일원화 - 지역커뮤니티와의 교류 증대 - 안정적인 소득확보	○ 귀농·귀촌 컨설팅·멘토링 사업 적극 추진 ○ 정착지원사업 추진 ○ 품목별 영농 교육의 지속적 추진 ○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갈등 조정

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4.1.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기조 및 방향

4.1.1.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기조

- 귀농·귀촌 차원을 뛰어넘어 도시민의 전원지역 정주 촉진을 국정과제로 채택
 - 국토의 분산형 정주구조 실천 수단

-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전략
 - 농산어촌 활성화 수단
 - 국민들에게 건전한 삶의 기회 제공 수단
- 여러 정부부처와 해당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 농산어촌의 삶의 질 증대 차원에서 접근
 - 중앙정부는 예산과 제도 개선 지원
 - 지역은 거버넌스를 통한 사업 추진

4.1.2.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다양한 전원 주거공간 정비사업 추진
- 주택, 토지 등 도시민 유치 자원의 관리 및 정보 제공
- 전원생활 예비체험의 기회 확대
- 농산어촌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체계화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사업 추진
- 기존 귀농정책의 내실화

4.2. 도시민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4.2.1. 다양한 전원 주거공간 정비사업 추진 과제

- 농산어촌 중심지의 종합 정비
 - 농산어촌의 읍·면 소재지가 기존 주민과 이주 도시민의 생활거점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정비
 - 농산어촌 중심지 주변에 고령자용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저밀도 전원주

거단지 등 조성

- 행안부의 소도읍가꾸기 사업, 농식품부의 거점면사업을 활용
- 공공임대주택의 농산어촌 중심지 입지 추진

○ 다양한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현행의 20호 이상의 공공지원 주거단지 조성 규모의 탄력적 조정
- 5호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시행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일부 지원
- 포괄보조사업 예산 활용

○ 이주민의 주거정비사업비 용자 사업

- 주택 구입 및 신축, 빈집 정비 시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용자

4.2.2. 도시민 유치 자원의 관리 및 정보 제공 과제

○ 도시민 유치 지역 자원 등록

- 지자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택, 토지, 매물, 빈집 등을 등록
- 기존 귀농·귀촌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빈집, 임대토지 조사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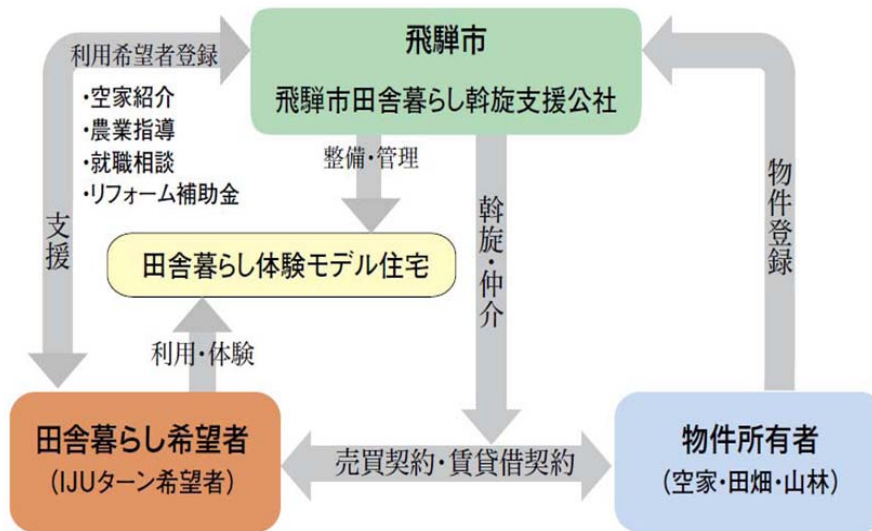
○ 등록 자원 정보 제공

- 수요자에게 등록된 매물 알선, 빈집 소개 등의 사업을 추진
- 특히 경제력이 낮은 젊은 귀농자에게는 빈집 및 임대 토지 정보 제공이 중요
-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아닌 행정기관 혹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공공성을 보장

○ 빈집 정비사업 추진

- 빈집을 수리하여 수요자에게 단기 혹은 장기 임대
- 소유자와 수요자 중간조직(행정) 3자 계약 방식
- 사회적기업 혹은 커뮤니티비즈니스로서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가능

그림 1-3. 일본 히단시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



4.2.3. 전원생활 예비체험 기회 확대 과제

○ 체재형 주말농원사업(클라인가르텐 사업) 확대

- 현재 농진청의 체재형 가족농원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체재형 주말농원사업 추진 (좋은 평가)
-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운영은 도시민 유치협의회 등에 위탁)

○ 지자체 주도의 예비체험프로그램 실시

- 실질적인 현장체험이 가능하며 체험 후 농어촌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체험형
 - 벼 재배, 밭일, 산나물 채취, 과일 수확 등 2박3일의 체험 메뉴 실시. 농촌관광체험활동과 연계
- 실습형
 - 단기 1주에서 장기 1년간의 농업실습프로그램 시행
 - 작목반, 농업기술센터, 개인농가 등에 위탁

• 농식품부의 농업인턴제를 활용하거나 지자체 별도의 프로그램 추진

표 1-5. 체류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구분	경기도 지원 주말농장	농촌진흥청(시범사업) 지원 주말농장
조성	• 2007~계속(경기도 13개소)	• 2008~2009 2개소(진안, 순창)
사업	• 5개 동 1개 사업, 마을단위	• 11개 동 1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직영 개발
대상	• 읍·면지역 제외 도시민	• 읍·면지역 제외 도시민
선정	• 인터넷을 통한 최고 입찰제	• 인터넷을 통한 최고 입찰제
운영	• 임대 기간: 매년 3~11월(연장 가능)	• 임대 기간: 매년 3~12월(연장가능)
금액	• 연간 320~500만 원(지역차이 존재)	• 연간 300만 원(최저200만 원, 최고 400만 원)
작물	• 과수류, 산채류, 텃밭작물	• 과수류, 산채류, 텃밭작물
사업 비용	• 2억 3천만 원(5개 동), 토지비 제외 • 1개동 당 4천 6백만 원	• 5억 원(11개 동), 토지비 제외 • 1개 동 당 4천 5백만 원
지원	•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국비50%, 시·군비50%

그림 1-4. 경기도 클라인가르텐 기본 배치



그림 1-5. 클라인가르텐 비교 사진



< 참고 사항 >

- 일본 에히메현 구마코겐정의 귀농예비실습프로그램 운영
 - 1997년부터 도시 귀농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농업실습기회 제공
 - 연수기간 동안 지역에 취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12~15만 엔 정도 연수비 지급(정부의 교부금과 자체예산)
 - 기본적으로 부기연수를 실시
 - ◆ 연수생이 작성한 경영분석 부기장을 보고 컨설팅, 평가 등 실시
 - ◆ 정(丁) 농업기술센터직원이 경영실적 평가 후 연수 계속 여부 평가
 - ◆ 연수가 끝난 사람이 취농을 할 경우, 농지유동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농지제공 등 취농지원사업 실시(23명의 농업연수생 중 19명 취농)
 - 신규 취농자에 대해서는 영농지원센터에서 5년 이내의 집중지도
 - ◆ 전담멘토제도, 정기 연수회 등
 - ◆ 연수생들이 이곳에 정착한 후 5년 이내에 그만 두면 정(丁)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4.2.4. 농산어촌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과제

- 신규 취농 촉진
 - 기존 귀농정책 충실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조합, 녹색환경 분야 등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마을사무장과 같은 기존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전문직 종사자 유입기반 확대
 -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전문 사업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여 소호(SOHO) 등 지식산업종사자 유치
- 기존 주민과 이주자의 공동참여를 촉진하는 조직 정비
 - 법인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정부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에 이주자 참여 폭 확대

4.2.5. 지자체 도시민 유치활동 체계화 과제

- 도시민 유치 전담조직 구성
 - 정보제공에서 이주민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도시민 유치사업을 전담
 - 행정조직 혹은 협의체(행정인력, 지역주민, 기존 귀농·귀촌자 등으로 구성)
- 도시민 유치 정보관리체계 구축
 - 출향인사, 이주 상담자 등 수요자 정보 수집 및 관리
 - 주택, 토지, 일자리 등 지역자원 정보 수집 및 관리
- 이주자 예비프로그램 진행
 - 예비 귀농·귀촌자 대상 지역방문 행사 개최

- 예비 귀농·귀촌자 대상 홈스테이 운영(귀농인의 집 등 활용)

○ 도시민 이주자 정착지원사업 추진

-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 매뉴얼 작성
-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멘토제 등 실시
- 지자체 독자적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예: 집들이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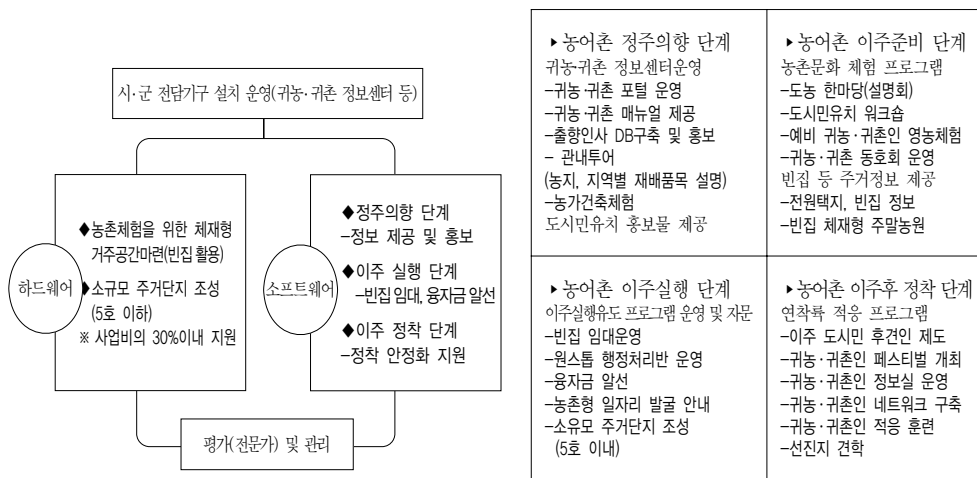
4.2.6. 기존 귀농·귀촌 정책의 내실화 과제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사업 추진

- 도시민 유치 관련 조직 운영, 정보 제공, 예비체험활동 소요비용 일부 지원

<참고: 농식품부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목적	농어촌 정주 희망 도시민의 성공적인 이주 정착 프로그램 지원
현황	시범사업(2007~2009, 3년) 10개소, 계속(2010~2012, 22개소 계획)
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농어촌 시·군
지원액	시·군 당 3년간 5~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참고로 농식품부 사업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의해 지자체의 귀농·귀촌센터 운영
- 양구, 화천, 서천, 고창, 완주, 진안, 곡성, 상주

○ 귀농 지원예산의 확대와 귀촌자 지원

- 귀농 지원예산은 수요에 비해 부족
- 현재 국비사업으로 최대 24,000만 원 지원 가능
 - 농업창업자금 (2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4천만 원)
 - 2011년도 정부 예산 500억 원 책정
- 예산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 집행도 사후적으로 이루어짐
- 귀농 예산을 확대하고 일부사업은 귀촌자에게도 혜택 확대

제2주제발표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 사례와 향후 과제

황주홍 (강진군 군수)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 사례와 향후 과제

강진군

Contents



I. 강진군 일반현황

II. 추진배경

III. 추진내용

1. 귀농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2. 귀농 자격 및 지원사항
3. 귀농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IV. 강진군 귀농현황



강진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 지리적 여건
 - 위 치 : 우리나라 최서남부
 - 거 리
 - 서울에서 365km(5시간)
 - 광주에서 74km(1시간30분)
- 인 구 : 41,164명(농가인구 수 15,597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287마을
- 면 적 : 50,430ha(경지면적 13,450ha)
 - 경지 13,450(답 11,223 / 전 2,227) / 호당 경지면적 1.85ha
- 기 상 : 기온 14.4℃(평균) 강수량 1,739mm

Ⅱ 지역농업의 특성

- 천혜적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박물관 등
- 온난한기상환경 - 특화 농산물 생산 용이
- 특화작목개발 - 절화소재, 장미, 수국, 파프리카, 오이, 당근 등
-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 농촌문화체험, 웰빙농산물 생산

강진군 일반현황

주요관광지

전라병영성

조선 전라도 육군의 총지휘부



영랑생가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김윤식 선생의 태어난 곳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80여편 시의 배경지



청자박물관

고려시대 500여년동안 청자 생산지

국내 발견 400여기의 가마터 중 200기가 이곳에 보존



무위사

국보 13호인 국악보전 소재지



다산초당

조선 실학자 정약용선생 유배지

'목민심서' 등 600여권의 책 저술



강진군 교육 여건

- 초등학교 : 14개교
- 중 학 교 : 8개교
- 고등학교 : 5개교
- 대 학 교 : 1개교



- 대안학교 - 늦봄 문익환 학교
- 강진 외국어타운 - 1 ~ 3일 체험과정, 주말 프로그램, 방학캠프과정

강진군 전입 혜택

● 전입시 지원되는 기본 장려금 - 인사팀

- ✚ 지역건강보험료: 1만원 / 세대기준, 직장인 및 면제 대상 제외
- ✚ 상수도 요금: 1인기준 18,000원(1회)
- ✚ 쓰레기봉투: 1인기준 7,200원(1회)
- ✚ 교통상해보험료: 차량대수 기준 5,000원(1회)
-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1회)-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경우
- ✚ 개인균등할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1년분(1회)
- ✚ 학비지원금: 1회, 100,000원 / 전입학생
- ✚ 군장병 전입 장려금: 1회, 50,000원

강진군 전입 혜택

● 노인에 대한 지원내용 - 사회복지팀, 가족복지팀

차상위 계층노인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일 위문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지원금액: 1인당 월 5만원 상당

장수수당 지급

90세 이상,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노인에게 매월 계좌 송금

◦ 지원금액: 월 5만원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 화장 시 1인당 30만원

강진군 전입 혜택

● 외국인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여성복지팀, 교육발전팀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 지원

1년 전 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자

- 지원금액 : 가구당 6,000천원

외국인 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 가구당 10회
- 지원금액 : 15만원(돌보미 수당)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 다문화 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 지원금액 : 1가구당 350만원 내외

다문화가정 여성
친정집 댁어주기

- 10가정 선정(희망가정) - 다문화 5, 일반 5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장학금 지원(년 12명)
- 상·하반기 각 중학생 3, 고등학교 3명씩 선발
- 지원금액 : 중학생 1인 30만원, 고등학교 1인 50만원 지원

강진군 전입 혜택

● 다자녀 가구 및 아동에 대한 지원 - 교육팀, 가족복지팀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

자녀수가 4인 이상 가정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진학 예정자

- 8명(상·하반기 각 4명씩 선발)
-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강진군 지역내 거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동병하치, 아동가족의료비 지원, 아동한방검진, 모아애택증진 프로그램 등
-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영유아 교육 중재 프로그램 예능교실, 예비 초등취학준비 프로그램 등
- 학교사회복지사업, 문화체험, 다도교실, 인성교육, 독서교실, 특기적성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

강진군 전입 혜택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 보건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첫째아 연간 120만원(월 10만원)
- 둘째아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 셋째아 이상 연간 420만원(월 35만원)

출산
준비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개월째 임산부

- 지원금액: 20만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금액: 매월 3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 10년간 보장

임신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 지원금액: 1회당 2만원, 최대 3회까지 6만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출산용품 5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 내의, 목욕용품)

강진군 전입 혜택

● 귀농, 귀어자에 대한 지원 -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팀

귀농·귀촌 지원
(가구당/최고)

가족단위 전입으로 세대주 64세 이하

- 귀농정착금 지원: 2,000만원
- ※ 정착금 지원은 사업 완료 정산 후 지급 (보조 50%, 자담 50%)
-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귀어자 지원
(가구당/최고)

가족단위 전입으로 세대주 64세 이하

- 귀어자 정착금 지원: 2,000만원
- ※ 정착금 지원은 사업 완료 정산 후 지급 (보조 50%, 자담 50%)
- 주택구입, 수리, 임차비 지원: 500만원



II. 추진배경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우수한 농업 인력의 조기정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를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

● 추진방침

- 귀농정착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
- 농업경영의 규모화로 귀농자의 소득향상 지원사업 등

Ⅲ. 추진 내용



1. 귀농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와 MOU 체결 : 2007.2.13



- 전국 최초 귀농지원조례 제정 : 2007. 5. 21

- 강진의료원과 진료비 지원 협약 체결



2. 귀농 자격 및 지원사항(군비 100%)

● 세대주 64세 이하 가족 구성원이 전입하여 농업인 자격을 갖춘 세대

● 정착 사업비 신청기간

○ 전입 5개월 후 ~ 18개월 이내

● 군비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지원 : 가구당 최고 2천만 원

○ 빈집 알선 및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백만 원 지원

○ 현장 체험 교육비 : 240만원(월 30만원, 6개월까지)



3. 귀농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 홍보 활동

○ SBS TV “있다 없다” 프로그램 전국방영(09. 2. 6) 이후 1년간

매월 1회 녹화방영으로 100억의 광고효과

○ 지방 TV와 라디오 방송 6회

○ 월간, 주간 잡지 5회, 지역신문 10회 이상

○ 전국귀농운동본부 계간 발행 「귀농통문」 홍보 4회

○ 강진군 귀농지원 정책 홍보 교육 출강 : 3회

– 귀농운동본부, 전북 진안, 전남 장흥

○ 귀농 선진지 벤치마킹 : 괴산, 상주, 완주, 진안, 홍성

– 2009년 하반기부터 강진군으로 역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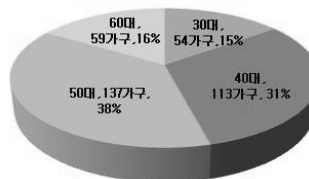
Ⅳ. 강진군 귀농현황

1. 강진군 귀농현황(2006~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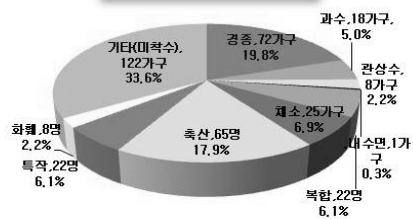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연도	총계	2006~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363가구	88	113	10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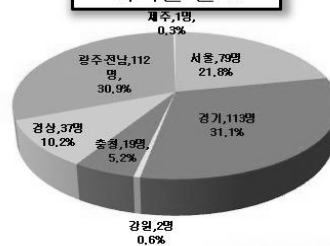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



작목별 분포



지역별 분포



2. 귀농정착지원 현황

○ 귀농 정착 지원 실적

귀 농 가구수	정착 보조지원(가구/백 만원)					주택 수리비 지원(가구/백 만원)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63	139/3,954	10/294	28/810	31/850	70/2,000	183/912	12/57	81/405	30/150	60/300

○ 귀농 농업인턴 지원 실적 (2009년도)

선도농장수	인턴 연수인원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13농장	18명	86,400	69,120	17,280

※ 월 1,200천원(보조 960, 농장주 240) - 2010년도 사업 없음.

○ 귀농 농장체험 및 귀농 교육비 지원 실적(2010년도)

계 (명/천원)	농장체험 실습비 지원	귀농학교 교육 이수 수강료 지원
11/4,750	5/3,000	6/1,750

※ 월 300천원 - 최고 8개월

2. 귀농정착지원 현황

○ 귀농 정착 교육 실적

구 분	귀농·귀촌 전국대회	작목교육	현장체험투어	귀농정책 홍보출강
횟 수(회)/인원(명)	1/300	5/503	5/294	3/200

○ 귀농인의 집(귀농 전 임시 숙소) 운영 : 3개소

위 치	관리자	연락처	비 고
신전면 수양마을	김 순 옥	010-2627-8400	실경비만 입주자 부담
성전면 도림마을	조 종 현	017-714-3447	최고 6개월 입주
작천면 교동마을	김 홍	010-8481-5043	





제3주제발표

귀농·귀촌 준비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

이환의 (충남 홍성군 홍동면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

- “시골살이를 꿈꾸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일회성 보조(補助)가 아닌 꾸준한 지원(支援)입니다!” -

1. 생애 첫농사로 얻은 교훈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 전문가분들의 안부를 여쭙 이는 올해로 귀농 14년차를 맞이하는 충남 홍성의 유기 농사꾼 이환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귀농·귀촌 준비(이주과정) 및 농어촌 정착 과정과 정책 수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귀농한 이로서 십 수 년간 농촌에 살며 느꼈던 어려움, 문제점, 개선해야 할 것들을 알려 지금 농촌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대로 안내하기 위함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오늘도 우리 마을과 옆 마을에 이사온 귀농·귀촌한 분들의 땅을 자원해서 갈아주었습니다. 일종의 선물인 셈이지요. 쟁기로 갈아엎은 면적이야 각기 660㎡와 300㎡에 불과했지만 오랜 장마후 인지라 시골말 그대로 ‘풀이 산’으로 그들이 낫이나 소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등)로 다루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한 농가의 경우 김장거리를 심을 땅이어서 어제는 농협에 동행하여 발효퇴비와 붕사 등의 구입 안내와 무, 배추에 구입한 거름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배추를 심을 땅에 농촌진흥청의 <작목별 표준 시비량 조건표>에 따라 몇 포대를 넣어야 하는 지와 거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는 평소 무, 배추, 고추 등의 거름 요구량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비작물(多肥作物)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추와 비교하여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같은 조건하에서 배추가 고추보다

더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표토를 깎아낸 그이의 땅에 유박과 축분 퇴비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저도 첫해에 그랬듯이 대개 새내기 들은 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건 이렇고, 저 건 이렇습니다’라며 성의껏 안내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때 초보 귀농·귀촌인이 당면한 요구와 입장을 <절실한 필요>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를 알아차려 바로바로 도움주기, 요즘은 이것 멘토링이라고 한대지요? 제가 의식적으로 후배 농가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게 된 계기는 귀농 첫해 벼농사를 지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덕입니다. 당시 못자리 준비 중에 갑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몰려와 돕는 바람에 익음때(熟期)가 다른 세 가지 품종의 벼가 본 논에서 쉬었습니다.

결국 4,950㎡(2,400평)을 일일이 낮으로 베어 경운기와 피대로 연결하는 막탈 곡기로 턴 것은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간 물떼기(中間落水)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어 섞인 벼를 익음때별로 골라 베야 하는데 논바닥은 모를 심게 생겼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논에서 낮으로 벼를 베어 간신히 탈곡한 뒤에 50kg이 넘는 벼를 일일이 등짐으로 논둑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콤바인 포대나 수매용 조곡 포대를 사용했다면 고생을 덜했을텐데, 비용을 아낀다고 왕겨 포대에 벼를 담았으니 어려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탈곡기를 논 안으로 옮길 때도 푹푹 빠져서 투바이포(2×4) 각재(角材)들을 준비해 철도 레일처럼 깔고 여기에 탈곡기를 올려 논 중앙으로 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두 마지기 모든 논의 수확을 마치니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를 ‘무서운 사람들, 오서산 꼭대기에 올려봐도 살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네 분들의 그런 평가조차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까닭입니다.

당시 홍동면에는 이웃마을에 저보다 몇 개월 먼저 자리잡은 귀농 선배 한 분

이 계셨습니다. 아마 선배님도 2년차이니 조언을 하거나 후배의 논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논농사의 기본만 알았다면 안해도 될 고생을 한 것이 억울해서 이듬해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농사 잘 짓는 이의 논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떼기를 할 즈음 밤에 전화를 걸어 “물 댈 때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 길로 캄캄한 밤에 삽과 후래쉬를 들고 논에 가서 물꼬를 텄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돌아도 되련만 오직 첫 해의 고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농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밭의 토질과 상관없이 질은 밭에 봄 감자 한 박스를 심었다가 대부분 죽는 바람에 겨우 두 상자를 수확했고, 한 두둑에 뿌려야 할 도라지 씨를 몇 두둑에 흩어 뿌렸다가 풀매는 게 하도 지겨워서 모종을 모조리 뽑아 스티로폼 박스로 열 개 분량을 일일이 다시 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5cm 내외의 모종을 10kg들이 딸기 박스에서 하나하나 꺼내어 다시 심는 광경을.... 그나마 그해 잦은 비에 거의 다 녹아 살아남은 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농기계도 없어 집앞 논 육백 평에 거름을 낼 때는 일륜차와 지게를 썼으니 트랙터, 콤바인 등 5대 농기계를 갖춘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모작을 꿈꾸며 2월 말에 터널과 멀칭을 해서 일찌감치 심은 완두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두둑 설계로 평균 다섯 번 안팎 비닐이 벗겨졌고, 그나마 아들집을 찾은 아버지께서 온도 적응과정(硬化)없이 비닐을 벗기는 바람에 호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해 늦가을에 수확한 고구마는 보관방법을 몰라 먹은 것보다 썩힌 게 더 많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지요. 어려움의 절정은 첫해 11월 초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봄판에 씨앗값만 55만 원이나 들인 생강을 3백 평 밭에서 2천kg 넘게 캐었으나 전국적으로 대풍이 들어 값이 폭락했던 겁니다. 당시 도매로 넘길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세운상가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서 kg당 2천 원씩 야채장수처럼

인근 시·군 5일장과 서울 골목 골목을 누벼야 했습니다.

첫해의 무용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농부가 밭 주변에 뽑아 던져버린 알타리무를 수거해 8만 원인가를 벌기도 하고, 서울에 제사와 모임 등 볼일이 있을 때는 미리 쌀 주문을 받아 산지와 소비지의 시세차(98년 당시 80kg당 2만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농한기에는 트랙터가 있는 농가의 표고목 작업을 돕는 대신 농번기에 로우터리 등 농기계 작업을 대행시켰습니다. 이렇듯 첫해에 영농 실패도 많았지만 바지런하게 움직여 3천 4백여 평 농지에서 조수입으로 일천백만 원, 농외소득은 5백만 원으로 첫 해부터 손익분기점을 맞추었습니다. 농사뿐 아니라 마을의 공동작업이나 애경사에도 열심을 내니 마을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적응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따라하기 쉽지 않은 예라 합니다. 스스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터라 다른 이들의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후 후배들의 생활을 살펴보니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생산과 판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가 막혔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마이크를 들고 농부에서 상인으로 발빠르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자상거래 시대니 그럴 필요조차 없겠지요. 그래도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느 정도의 감투정신(敢鬪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농사든 밭농사든 축산이든 정해진 시기에 작물과 가축의 요구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는 노력.... 이게 부족하면 농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즉 풀을 매야하는 시기에는 풀을 매고, 거름이 필요한 시기에는 거름을 더하려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확이 형편없거나 영농의 실패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누구든 우리처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십년 이상 지나보니 갈수록 ‘농사를 전업으로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농

사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농토 대부분을 풀논, 풀밭으로 만드는 분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유기재배라지만 작물의 요구에 맞춰가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고 주변에서도 안내를 잘 해야 되겠지요. 대개 한 두 해 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텃밭농사가 적합합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것보다 본래 하던 일이나 시골에서 적당한 일거리를 찾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물론 작물과 풀을 동시에 키우면서도 농사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제 첫째 농사를 경험으로 영농부문에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첫째, 영농기술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고, 둘째, 적어도 2년간은 제대로 농사짓는 귀농 선배 혹은 베테랑 농부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며, 셋째, 현재의 범용 귀농·귀촌 종합매뉴얼 대신 <초보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영농매뉴얼>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뿌리내림의 진통 - 농촌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영농을 통한 경제적 자립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마을분들과 원만히 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도시의 묵은 때를 벗기 전에는요. 그래서 저는 자주 ‘거듭남’이라는 종교적 수사(修辭)를 사용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듯 시골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과 도시는 만이와 막내의 간극만큼이나 체질과 근본이 다릅니다. 흔히 만이의 특성, 즉 체면을 중시하고, 관계중심적이며,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집안 대소사에 빠지지 않아야 할 성실성이 요구되는 곳이 농촌사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왔으면서도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꼭 따로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

원의 풍요로움을 즐기러 왔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좀처럼 도시인의 습성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을과 구별되어 자신과 가족만의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보란 듯이 집도 멋지게 짓고 사설 경비업체의 심벌마크도 담벼락 여기저기에 붙여둡니다. 마치 ‘건드리기만 해봐!’라고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시골살이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변수가 많듯이 농촌의 자연과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 한 예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도 도시처럼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굴곡진 곳에서 눈이나 개울로 미끄러진 차량이 한 두 대가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물먹은 흙길이나 심지어 자기집 마당에서조차 차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레커를 부를 수도 있지만 동네 주민의 트랙터로 살짝 당겨주면 대부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보일러, 양수기도 종종 속을 썩이는데 이웃과 관계가 나쁘면 고칠 때까지 추운 방에서 온가족이 전기장판으로 견뎌야 합니다. 읍내에서 사람을 부르면 되겠지만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할 뿐더러 거리관계로 도시보다 비싼 출장비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골속의 도시인들은 농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가 많고 비합리적 성향이라고 비판합니다. 농촌도 사람사는 세상인지라 이 같은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이나 조정(調整)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로한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르신들의 고집이나 주장을 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시골길의 생김새가 그러하듯 충청도말로 어지간하면 구불구불 좀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골스럽게 사는 길(道)입니다. 이성과 합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똑바로 돌진하면 얼마 가지 않아 도시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인접 면(面)에서도 같은 일이 생겼습

니다. 무려 3억이나 들여 멋들어진 집을 짓고서도 이웃들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징그러워’ 떠나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IMF 전후의 30~40대 생계형 귀농인들은 비교적 생각이 유연한 젊은 층이어서 시골 어르신들과 큰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일부는 농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귀농교육 중에 송사(訟事)를 진행 중인다는 분도 몇 사람 만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에 이기든 지든 앞으로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 불을 보듯 훤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나 크게 무리한 주장에는 단호함이 있어야겠지만, 굳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될 일은 시간이 좀 걸려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시골사람이 된다는 건 이미 농촌을 지켜온 분들이 닦아놓은 터전에 내가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해서 도시처럼 곧바로 아파트 옆집처럼 입주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밟는 마을길이 십 수 년 전 주민 누군가가 시골말로 ‘회사’(喜事)한 땅일지도 모르고 무심코 들른 마을회관조차 건립 시 정부지원금 외에 농가마다 얼마씩 ‘찬조’(贊助) 하여 세워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도시에서야 어디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골은, 농촌은 다릅니다. 자의든 타의든 돈이 드는 일에는 회사와 찬조가 뒤따릅니다. 하다못해 도시의 아들딸이 아주 가끔씩이라도 고향에 올 때 마을회관에 굴이나 소주 박스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게 시골의 법(法)이고 시골 출신 자녀들의 인심(仁心)입니다. 궁극적으로야 내 부모를 위한 행동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집집마다 돌아가며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처가 동네 회관에 해마다 두어 차례씩 인사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골만의 물이자 순환의 고리들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돌아보아 생각이 굳어있거나 나 혹은 가족 중심으로 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는 훈

런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동네로, 이웃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도시락(都市樂)을 들고 시골로 향하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그네요 외지인이지 동네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농촌에서 살고 싶은 베이비부머, 은퇴형 예비 귀농·귀촌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귀촌인을 위한 교육 과정이 따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귀농·귀촌을 아우르다 보니 초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귀촌의 경우 영농분야를 텃밭재배 정도로 줄이고 적응(관계형성)이나 건축(집고치기), 조경, 농촌에서의 취미생활(전원생활 누리기), 은퇴자를 위한 농촌형 소호(SOHO) 등 귀촌인에 걸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소농(小農), 전역군인, 산재대상자 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도 좋은 예입니다. 매뉴얼도 이를테면 ‘베이비부머를 위한 맞춤형 귀촌설계 전략서’처럼 폭을 줄이되 깊이를 더한 지침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오늘 모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3. 자식같은 농산물이라도 팔아야 산다 - 농촌에서의 생존전략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 중 삼분의 일이 귀농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농사를 지속하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3년이 고비라 했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겠지요.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에서 직간접적인 귀농지원책을 이어가는 것도 크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개별 귀농인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어려움, 농산물 판매에 대해 시원스러운 답을 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귀농 후 처음 2년간은 동네에 들어오는 <순회수집상+택배+방문객 대상 농장 직판(소매)+거리판매(소매)+도매(도시 슈퍼)> 등 계절과 품목별 생산량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팔았습니다. 이 중 순회 수집상에게 파는 것은 판로가 없는 농가에서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수취가가 제일 낮습니다. 98년도 기준으로 들깨 잎, 고구마순, 고추순(잎)이 4kg에 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대학생의 커피숍 아르바이트 시급이 2천 5백 원 안팎인 바 농산물 판매금액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니(초보 귀농인 일량 기준) 대략 천원이었습니다. 농산물을 넘기기가 아까워서 중단한 대신 씹씹이를 더 줄이고(부식 자체조달+각종 보험금 해지) 택배와 거리(5일장)판매에 주력하였습니다. 3년차부터 지역의 유기농 생협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왔으며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총 수확량 대비 50~70% 가량을 생협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장 직판과 택배를 하고 있으며 택배 건수는 연간 2백 건 정도입니다. 현재 생협에 내는 품목은 쌀, 무, 생강 등으로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내에 생협이 있어 비슷한 조직이 없는 선후배 귀농동료보다 판매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산의 감(感)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은 꾸준히 직거래를 해왔습니다. 선별을 꼼꼼히 하고 작물에 따라 토질을 고려해 재배하니 생협에 출하한 농산물(고구마, 감자, 완두 등)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상품이 나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마케팅의 금언처럼 가능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고구마는 이발 저발 실험한 끝에 3년만에야 원종(原種)의 맛을 재현했고 균일한 품질을 위해 해마다 같은 자리에만 심게됩니다. 고객 중 어떤 이는 저희 농산물이 떨어졌을 때 믿을만한 다른 농가를 추천해주어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인증사양은 같을지 몰라도 ‘그 맛이 안난다’는 겁니다.

4. 썩지 않는 마늘 신화를 만들어내다

지금은 얼마 안되지만 전에 유기농 마늘 작목원이었을 때는 한 해 4백 평 이상 심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늘의 특징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결은 수확 후 한 두 달 가까이 비닐하우스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는 겁니다. 한여름 기온이 올라가면 차광막을 치고 더 말린 후 해가림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없이 수확 후 바로 처마에 매달았을 때 장마가 길어지면 감모율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건조과정에서 다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고온기에 마늘이 햇볕에 데지 않도록 신경쓰면 이듬해 심을 때까지 싱싱한 마늘을 고객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생협이 소비자들조차 “이런 마늘은 처음 봤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재배과정에서도 화학비료를 치지 않으니 그만큼 조직이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확 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상품성이 크게 올라가고 매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없어서 못 팔게 되지요. 마늘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채소류는 모래참흙 땅에 두둑을 높이 만들어 물이 잘 빠지게 하고 적기에 수확해서 알맞은 방법으로 갈무리하면 없어서 못 팔지, 남아서 썩히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고구마는 이층 다락방에 두어 이듬해 늦은 봄까지 보관해 팔고 감자, 당근은 수확 즉시 저온저장고로 옮겨 수분 증발을 막아서 상품성을 유지합니다. 성정이 찬찬한 아내가 농산물 관리를 하고 있어 품질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재배하는 벼(쌀)도 3월까지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되 이후에는 저온저장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4월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 미질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방아를 찧은 뒤 포대와 비닐로 2중 포장을 하여 5℃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균일한 품질을 위해 이듬해 7월까지 보낼 수 있는 양만 보관하고 햅쌀이 나올 때까지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도 수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난 품종만을 재배하여 공급하자 한때 “배추에 꿀쳤냐?”, “깍두기 담그려고 샀다가 전부 생으로 깎아먹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지는 읽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와 같은 재배방식-소량 다품종 직거래 판매-를 꿈꾸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농산물의 맛에 제일 신경을 써야한다는 겁니다. 과거 서울의 큰 슈퍼와 도매거래를 할 때도 저희 배추는 일반 시장의 배추에 비해 외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기당 3kg 이상이나가는 품종을 심을 수도 있지만 색깔과 고소한 맛을 고려해 속노란 배추만 고집했습니다. 크기도 작고 벌레 구멍이 많은데도 매년 슈퍼에서 두말없이 사준 것은 오로지 맛과 소비자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배추는 슈퍼에서 마이크 들고 떠들 일이 없습니다. 실한 놈으로 두어 포기 짝 갈라놓으면 소비자들이 고갱이를 어느새 다 뜯어 먹습니다. 당장 입에서 요구하는데 안 살도리가 있습니까? 1톤 트럭으로 한 차 가득 가져가서 절반은 슈퍼에 풀고 나머지는 미리 주문한 가구에 배달을 하거나 차위에서 직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해는 한 주 내내 김장거리를 꾸려 서울로 출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다보면 별별 소비자를 다 만나게 됩니다. 보내주는 대로 감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분도 보게 되지요. 드문 예지만 생산자의 밭에서 직접 수확해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자주 하시고 맛이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고객도 만납니다. 지금 저희 집 고객 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부부는 지명(地名)을 넣어 ‘00아줌마’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예민한 대신 충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가히 품질 평가위원이라 부를만한 분들과 3년 이상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해당 농가의 농산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직거래를 하던 소비자께서 임종 시에 “내가 가더라도 00이네와 거래를 끊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

라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농가만의 강점(unique selling point)을 구축한다면 판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 2년간 일륜차로 도심의 골목을 누빌 때 유기재배를 했다고 해도 절대로 믿어주지 않던 고객들이 3~4년이 지나자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낯모르는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은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5. 귀농후배가 제시한 새로운 판매전술-꾸러미 운동

소비자와의 직거래야 저희도 경험이 많지만 3년 전 홍성으로 온 한 귀농 후배는 선진국에서 한 발 앞서 제시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공동체 지원농업 혹은 소비자가 지원하는 농업)에 기반한 꾸러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농가에서는 일정 주기로 도시가구의 먹거리를 종류별로 채겨 택배로 보냅니다. 저희는 많아야 다섯 가지 이내 혹은 단품위주로 공급했지만 후배는 매주 열 가지 내외의 채소를 박스에 담아 보냅니다. 간혹 지역의 가공품(유기농 요구르트와 식혜, 우리밀빵)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아랫집 할머니와 공동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귀농 선후배에게 부탁도 합니다. 귀농 첫째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듬해 꾸러미를 시작하고서는 안정되었습니다. 3년차인 올해는 오히려 우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후배가 성공을 거두자 많은 이들이 따라해서 이제는 새내기 농부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꾸러미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농가의 형편에 따라 공급주기와 수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귀농 초에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촌에서 이웃이 내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또 없으니까요. 신세를 지면 더한 것을 내어주는 보은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 시골입니다. 아마 농산물을 팔아드린 대신 얻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때로 밭도 매주시고 없는 모종도 이것 저것 챙겨주시고 도시의 아들딸이 사온 것들도 나눠주시겠지요. 농

촌에서 이보다 흐뭇하고 정겨운 광경이 더 있을까요?

꾸러미 운동의 더욱 큰 의미는 유통조직이 없는 지역에서 귀농인이 기댈만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전에는 귀농 교육 시에 “조직이 없으면 지역에서 작게라도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힘든 일이어서 속으로는 미안했지요. 지금은 “꾸러미로 시작해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귀농 관련 일을 하는 지자체나 행정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지자체의 택배비 지원만 일정부분 뒷받침된다면 귀농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SA를 잘 꾸려내면 기존 유통라인의 횡포를 줄일 수도 있고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은 물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귀농인 외에도 지역 내에 작목반이나 영농조직이 없어 개별화되고 분산된 지역민들을 엮어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후배는 시장(市場)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농약이나 비료는 물론 멀칭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기준은 시장의 그것과 다릅니다. 당근을 예로 든다면 엄지손가락 굵기부터 공급할 것입니다. 때로는 못생기거나 벌레먹은 것들도 갈 겁니다. 그래도 동의하신다면 저를 따르십시오. 대신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이는 이런 농사나 공급방식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재미나게 짓는 농사, 이들 부부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큼니다. 당장에 다른 농부들이 따라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나, 저나 뒤따르는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끝으로 꾸러미 운동은 공급주기 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한 주는 생채소, 다른 한 주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조림이나 장아찌로 보낼 수도 있고 농한기에 폭 쉬고 싶다면 잠시 중단해도 됩니다. 기왕에 조직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작에 어느 단위농협에서도 소포장팀을 꾸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러미 소비자를 농가로 초청해 농촌체험이나

지역 관광과 연계할 수도 있겠지요. 아직은 미완(未完)의 유통형태인 만큼 농가마다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더해 빈 곳을 채워가면 됩니다. 꾸러미 운동은 효율만을 추구해 단작 위주로 규모를 키워가는 시장지향 농업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소농, 가족농이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기반과 근거를 제시한 하나의 혁신입니다. 아니 물품의 유통이라기보다 먹을거리에 기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소통(疏通)에 가까워 보입니다. 꾸러미에는 자연스레 서로의 이야기(story)가 덧입혀질 터이니깐요. 생협이 커지면서 희미해진 캐치프레이즈 - 얼굴과 얼굴을 아는 관계, 먹을거리를 공유하는 한 식구(食口)의 꿈. 어찌보면 꾸러미가 명절에 고향을 찾은 자녀의 손에 들려준 어머니의 보따리처럼 농산물 유통의 현실과 이상의 교차점을 관통하는 궁극의 풋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농가단위 가공 농산물의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자칫 꾸러미 농가가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검토가 따랐으면 합니다.

6. 긴호흡이 필요한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1997년의 어느 날, 농식품부에 귀농상담실이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의 답변은 “책상 하나에 전화 한대가 전부여서 도움드릴 것은 없다며 번호 하나를 알려줄테니 그리로 전화해보시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알려준 번호는 민간 귀농지원기관인 전국귀농운동본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정부기관이 민간에게 책무를 떠넘기려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뒤에 국민일보를 통해 접한 정부의 귀농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기술교육, 간척지 우선 불하, 귀농자금 지원 등등. 이중 귀농자금 지원안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즉시 실행되었지만 듣기로 기술교육은 그로부터 십여 년이 걸렸고, 과문(寡聞)한 탓인지 아직까지 귀농인이 간척지를 불하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귀농 후 받은 자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도 두어 마리 사고 부족한 것들을 갖추는 데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뒷날 귀농자금이 취농 창업자금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귀농·귀촌지원법이 시행된 2009년도까지 십여 년간은 이렇다 할 귀농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 년 전에 실시한 논 휴경제는 귀농인을 포함한 임차농가에 커다란 아픔을 주었습니다. 임대료보다 비싼 휴경 보상금을 받으려 지주들이 논을 회수해 많은 귀농인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정책 당국조차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과제가 정책 수요인만큼 평소 정책수립 기관에 요청했던 것들을 재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요구보다는 정책수립의 자세같은 겁니다. 작년 7월경 우리 마을회관에 모 신문기자 출신의 귀농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이는 곤충농장을 꿈꿨고 선배들은 후배를 위해 농장부지를 알선하는 등 도움을 주려했습니다. 곧 마음에 드는 부지가 나타났지만 몇 개월 후 그이는 곤충농장의 꿈을 접고 흥성을 떠났습니다. 진흥지역이라 전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지자체의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곤충이 가축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후배는 곤충산업육성법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제도가 많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토지관련법의 변경은 워낙 사안이 중대한지라 단시간에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나 제도 시행 시에는 관련 조항이나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이 한참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선 신상품을 기획할 때 해당 상품의 시장에서의 가상 위치(positon)를 설정하여 정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포지셔닝이라 부릅니다. 실제 상품 런칭 시에 실수나 실패를 최대한 줄이려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시장에서의 성패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니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이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농·귀촌지원법이 시행 일 년만에 항목별로 지원이 중지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때 '97년의 모습에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개별 정책의 품질도 문제입니다. 한 예로 집수리 비용 보조금은 당초 적용범위가 좁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이나 수혜 귀농인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급시기도 해를 넘기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2008년 발 세계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돌리기에는 공색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귀농인들에게는 법의 제정과 발표 시 갖는 기대감과 시행 후의 만족도에는 좁히기 힘든 거리감이 남았습니다.

예비 귀농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던 <귀농인의 집>도 시·군 당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더 주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이나 농민에게 안내자로서의 사명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청자가 부족해 사업 일부가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지자체에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되 기한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필요한 곳에 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을까요? 충남발전연구원의 세미나에 참석해 뒤늦게 전해듣고 다른 지자체의 반납분을 흥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여러가지 난관으로 인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보기에 우리 공무나 행정은 아직 유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곤충농장과 유사한 행정규제로 고민하는 체험마을·교육농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 건축 시 현행법상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농촌체험이나 농장 내 교육이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교육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나 마을 단위의 농산물 가공품 판매 등도 아직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원하게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고추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가루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조미식품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합니다. 잠재적 범법자의 양산을 막기 위

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한 모호한 정책 전반에 걸쳐 농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농촌을 유지할 유일한 대안이 도시민 유치와 사업의 핵심은 귀농·귀촌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난 이들이 같은 이유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고, 어려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낸 베이비붐 세대, 5~60대 은퇴자들이 농촌행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 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이 농촌행을 꿈꾸는 속 깊은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도시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베이비붐이 귀농·귀촌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곳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농업·농촌을 살리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 후기 >

제가 사는 홍성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홍성군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처럼 행정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풍광이 빼어난 지역도 아닙니다. 작년까지 홍성군이 전입자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차량 번호판 교체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귀농 후배들에게 “홍성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이 무어냐?”고 물으면 1순위는 항상 선배들의 세심한 도움과 안내를 꼽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스해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혹한기에 일주일 가까이 언 땅을 파가며 동료의 집을 고치고 이삿날에는 도착 전에 군불을 지피려 애쓰던 추억은 어느덧 십년도 더 된 일입니다. 누군가 땅을 사려할 때는 다 같이 몰려가 사려는 이가 보지 못한 문제점들을 들춰내서 막은 적도 여러 건

입니다. 작년에는 태풍이 쓸어버린 천이백 평 후배의 논에서 낫을 들고 만났습니다. 이것이 후배들이 감동하는 홍성의 힘이고 십오 년간 흔들리지 않는 전통입니다. 다행이 군에서도 작년 가을부터 담당자를 배치하고 귀농 지원업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사적인 첫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홍성군 귀농종합지원센터>의 개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컨테이너 사무실조차 없어 귀농지원센터의 간판이 일 년마다 농가를 떠돌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홍성 귀농인들의 오랜 꿈이 이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4주제발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유상오 (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

1. 은퇴 후의 삶: 도시 VS 귀촌

1.1. 굴곡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험해 온 약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

- 굴곡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험해 온 약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55-63세)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들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늘의 세계 최강을 만든 주역으로 5無(無자본, 無자원, 無기술, 無에너지, 無자신감)의 시대를 극복하고 한국경제 일으킨 주역이다.
- 실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가 80달러에서 1,000달러의 시대(12.5배 성장)를 만들었다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20배)의 고도성장을 만든 근대화의 역군이었다. 즉 그들은 최고를 만든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 실제로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를 변화시켰다. 최초의 2부제, 3부제 학교수업, 최초의 추첨제 입학, 대학정원제, 대기업입사, 결혼시기에는 집값아파트 값폭등, 분당 일산중동, 산본 등 4대 신도시를 만들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또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기러기야빠를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 2010년 이들이 은퇴의 첫발을 내딛었다. 단순한 은퇴의 첫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 어디서 나는가, 은퇴 후 뭐하고 사나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2013년 소위 58년 개띠의 은퇴시기는 무척 중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58년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도와 실현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묵시적 인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58년 개띠가 본격 은퇴시점인 2013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1.2. 50대를 전후하여 은퇴자들의 새로운 걱정, 노후!!!

- 한국사회의 복지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빈곤과 대물림은

일부 은퇴자뿐만 아니라, 고령자, 차상위층자 등이 그 대상이다. 실제 국민 연금은 2명 중 1명이 무가입자이고, 의료보험은 3명 중 1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 만약 20~40대의 젊은층이라면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만 고령자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한국의 도시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도 어렵다. 대학졸업 후 매년 5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내지 88만 원 세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이들을 방임한 채 베이비부머나 고령자세대에 접근했다가는 2010년 프랑스와 같은 세대간 갈등을 뛰어 넘는 세대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경제는 연 4%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 연일 세계최초와 수출, FTA 등이 회자되지만 대한민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만이 주인인 사회이다.
- 은퇴 후 도시 내 창업의 성공확률은 20% 미만이다. 실제 50대 자영업자가 310만 명 이상인 사회에서 자영업 선호분야인 외식산업에서의 성공확률은 5%미만이다. 크게 잡아 20%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80%가 아니다. 재취업, 창업이 어려워 3D업종에 종사하지만 그것도 1~3년 후에는 그 직업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건강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 그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현상이다. 이후에는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도 안하고 서서히 사회에서 멀어지는 고령층이 된다. 한마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슬픈 추상화이다.
- 이러한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겪어야 할 노후경제의 어려움은 국가경쟁력 약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 여건이 못된다. 이들 스스로 자조적 복지 혹은 자립적 복지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부분을 교육받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본능적 위협과 자각만이 이들을 맴돌고 있다.

- 하지만 현재의 국가안전망에서 이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을 위해 해 준 것도 별로 없다. 때문에 고령자들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0년 45.1%로 OECD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OECD국가의 평균 빈곤율 13.3%에 3.4배에 이른다. 노인자살률도 OECD회원국 중 1위로 인구 10만 명당 65~74세 자살율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배 이상이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60명으로 전 세계 최고이다. 이 불편한 진실이 대한민국 리더들이 전정 아파해야 할 대목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즉, 부국강병의 시대에서 부국강복(富國強福)의 시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역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조적 복지를 만들 시스템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존엄성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자조적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국가가 입법해야 한다.
-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거대 도시자본을 도시와 농촌이 잘 사는 공간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도농병발(都農並發)책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이동과 도농병발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은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낼 합의는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거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합의는 필연적으로 젊은층의 일자리 마련이 전제되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

1.3.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 은퇴 후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건강+가족+친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건강, 가족, 친구, 이 세 가지는 유리잔과 같아 한번 떨트리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간과한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취미+봉사’인데 취미가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방안이어야 바람직하다. ‘일=취미=봉사’가 병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컨트롤이 필요하고 연습해야 한다. 또 이러한 롤 모델을 우리사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귀촌 후 귀농에 관한 이러한 롤 모델 소개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는 미미하다.
- 마지막으로 ‘학습+돈’이 필요하다. 학습은 이성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돈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8가지가 은퇴 후 삶에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 은퇴 후 행복이란 8가지를 조화롭게 굴리는 것이다. ‘욕망을 충족하는 만족’이란 인간에게 없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버려야 한다. 법정스님은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는 실제 저서 무소유의 삶에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욕심을 버리고 장소를 버린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도시에서 은퇴 후를 계획 중인 사람들의 경제 예상활동은 무척 외롭다. 결국은 조직에서 물러나고 스스로 경제를 개척해야 하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추락하고 이들이 대기업 시스템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확률은 5%미만이다.

1.4. 귀촌을 계획 중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금액을 실제 은퇴자들을 통해 비교

- 은퇴 후 도시에서 살려면 지속적으로 ‘돈=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도시란 잔인한 공간이다. 도시란 못 벌고 돈을 써야 하는 공간으로서, 과거에 혹은 왕년에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못 벌고 돈쓰는 구조의 도시에서의 은퇴 이후 돈 없는 계층이 겪어야 할 생존게임의 생존확율은 5%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5%의 소수의 부자만이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인구적으로 본다면 약 240만 명 정도만이 부를 유지하고 재미있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을 만끽할 것이다.
- 고령자들의 빈곤층으로의 몰락과정은 비참하다. 일차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약 40%가 빈곤층으로 몰락하고, 이차적으로 그 자녀세대가, 불안한 중산층 세대가 계속 추락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만이 은퇴 이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은 연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하거나 금융권의 공포마케팅에 등장하는 10억 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50억 원 이상의 자산가이다. 은퇴 이후 보통사람들이 도시에서 인내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갈수록 경사가 심한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다. 쓰러짐은 곧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 도시에서 살려면 대기업, 혹은 금융권의 공포마케팅에서는 약 10억 원의 여유자금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집과 차, 비상금(1억 원) 외에도 건강한 50대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관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팁도 잊지 않는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은퇴자의 30%가 5년 안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은 40%가 빈곤층이 된다고 말한다. 이들의 가정은 ‘도시에서 산다면’이라는 말이 단지 빠져 있다.
- 그렇다면 시골생활은 어떨까. 만약 시골에서 산다면 월 100만 원을 만들면

행복하고 못 만든다면 불행하다는 이단논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향평준화와 농촌이 가진 공동체성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 상실감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도시처럼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300만 원이 필요없다. 텃밭을 가꾸면서 취미와 일을 하고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지인들과 나누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봉사도 할 수 있다.

1.5. 시골로 내려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실제 은퇴자는 바보이다.

- 농사는 도시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늘과 땅의 조화와 인간의 기술이 만드는 예술품이기 때문이다. 즉, 기후, 기상, 토질, 토양이 사람의 농기술과 만나 정성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가지가 일치해야 농사는 성공한다. 하지만 초기에는 공부해서 얻은 농기술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경험치가 축적되는 약 5년간은 향촌귀촌자는 바보이다. 이들이 농사를 프로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 5~10여 년이 걸린다. 또 최소 3천 평 이상의 농지와 약 1억 원 정도의 농기계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장만한 이후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대부분 원주민보다 많이 벌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시적 사고에서 출발한 마케팅 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은퇴자들은 자신의 건강, 체력 조건을 잘 고려해 귀농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55세 정년 이후 농촌에 60세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10년은 훈련기간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체력이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농사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평균 농부는 77~80세 정도에 은퇴를 한다. 은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이후 끝까지 돈을 벌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1.6. 시골로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한다면 3천만 원~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 텃밭 딸린 집을 임대하고 여기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가공, 유통, 판매, 축제, 민박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면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과 취미와 봉사를 행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자조적 복지이며 마을단위에서 한다면 ‘새마을운동의 21세기화’이자 자립적 복지이다.
- 우리가 은퇴귀촌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사회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노후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은퇴귀촌은 돈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과 돈, 가족행복,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와 같이 못 벌고 돈쓰는 이중손해구조가 아니다. 최소 농산물을 생산하고 먹거리 안정을 담보하는 현상유지구조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다.

2. 귀촌하려면 얼마의 돈이?

2.1. 40~50대 은퇴 후 귀촌에 대한 높은 관심

-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숨 막히고 스트레스 받는 공간에서 뛰쳐나가 자유롭게 느리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높다. 농촌의 전원생활 동경,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지속적인 생산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은퇴 후 약 60% 이상의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동경하지만 이들 중 약 5% 정도가 실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2. 귀촌의 경제사회적 의미

- 귀촌이 가진 경제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도시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농촌으로 귀촌향촌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도시를 떠나는 순간부터 도시는 주택가격 하향화+교통여건 개선+교육여건 향상+취업기회 확대+도시공해 저하+도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 도시를 떠나 30년간 농산어촌에 귀촌한다면 도시에 약 1억 원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 반대로 시골의 경우는 어떨까. 농산어촌도 농촌경제 활력+지역문화계승발전+농촌학교 폐교방지+지역일자리 창출+정부교부금 증대+재래상권 부활+국토균형발전+주민소득증대+지역활성화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도 한사람이 30년 귀촌한다면 농산어촌에 약 8천만 원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초래한다.

2.3.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보상

-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어떻게 귀촌인에게 보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적어도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는 향촌(向村)인들에게 약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일단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하겠지만 우리사회의 복지안전망과 도시발전을 위해 꼭 짊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 이것은 유능한 도시은퇴자가 시골에 거주하면서 현재 정부가 농촌공간을 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정책을 보완하게 된다. 또 신규 취농인력을 확보하고 지역활성화를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4. 실제 얼마의 은퇴비용을 예상하는가?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농산어촌에 내려가 산다면 크게 보면 귀농형과 귀촌형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이밖에 취직형이 있으나 과소지역에서는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 먼저 귀농형은 2.5~13억 원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가이다. 즉, 농토의 지가는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지가는 농사하기에는 너무 비싸 적합하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공시지가는 m^2 당 차이는 있지만 3천 원에서 7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실제 매매가는 이것에 5~10배 이상이다. 실제 평당 거래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은행이자도 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에서의 전업농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신규취농을 하고 싶다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원교지이면서 과소지역을 권한다. 이들 지역은 전답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m^2 당 700~8,000원 수준이다. 대략 평당 5만 원 정도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면 농지구입가격도 결정된다. 평균 3천 평을 기준으로 평당 5만 원~30만 원이 투자된다. 즉, 1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농기계 구입 비용도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현재 전업농민들은 평균 1억 원 이상을 농기계 구입에 투입하고 있다. 살 집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데 약 5천~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총 투자비용은 단순계산으로 2억 5천만 원에서 1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돈을 투자해 약 10여 년의 견습과 훈련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익을 내다는 결론이다.
- 하늘과 땅을 아는데 약 5~10년 즉, 귀농 10년 후부터 본격적인 이익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60~70줄에 농사를 짓는 다면 얼마나 더 짓겠는가. 우

리나라 평균 농업 은퇴 연령은 77~80세.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 죽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 귀촌형은 기본이 임대형이다. 돈을 적게 들이고 대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농사는 농민에게 귀촌인은 판매와 홍보이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시키고 파는 역할을 하자. 서로 상부상조하는 개념이다. 서로 도와주는 개념이다. 지옥과 천국은 똑같은 조건이다. 산해진미가 가득 담겨있는 뷔페이다. 단지 젓가락 길이가 1m이다. 지옥은 그것을 자기 입에 넣으려다 싸우고 천국은 서로에게 다정스런 표정으로 먹여주는 그런 곳이다. 농민과 향촌자는 서로 도와야 한다.

2.5. “귀촌인 양부모 맺고 같이 살기”, “향촌귀촌서약서” 캠페인 전개

- 농식품부, 보복부, 행안부 등에서 귀촌인을 대상으로 ‘양부모 맺고 같이 살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부분 자식이 도시에 있는 현실에서 노부모를 모시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을 타개해 주는 것이 향촌귀촌자들이 시골로 내려가 시골노인을 양부모로 모시고 돌보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들을 돕고 보살핀다면 여러 사회문제도 해결되고 민간 사회안전망도 되살아나고 국가재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 자조적 복지이다.
- 전국 농촌 약 50만 가구의 독거노인 혹은 노부부를 귀촌인이 자식이 되어 부양하고 농기술을 배우고 그 집에서 같이 살거나 이웃에서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것은 후대 계승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만든 것과 같이 지역문화계승을 위해 양부모 모시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사회운동화된다면 정부의 복지관리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농촌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양부모 모시기 운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 향촌귀촌서약서이다. 쉽게 말하면 장기기증서약서를 작성하듯 자신이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는 향촌

귀촌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 현재 시골에 내려가면 특히 고향마을로 가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장애가 있다. 특히 실패자나 능력없는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해소해 주는 사회적 면죄부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것을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운동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는 순간 정책이 되고 운동의 자유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그 순간 운동은 끝난다. 따라서 운동은 민간이, 정부의 지원은 보이지 않게 하는 세련미가 요구된다.

2.6. 1:1상담을 통해 3000만 원으로 귀촌설계 / 귀촌계획 수립의 단계들을 자세하게 설명

- 필자는 ‘3천만 원으로 은퇴 후 40년 사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농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5쇄를 인쇄하고 현재도 꾸준히 팔리는 책이다. 3천만 원으로 40년 사는 귀촌설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1~2천만 원으로 텃밭 딸린 집을 임대한다. 가급적 2년 이상 장기 임대가 바람직하다. 선택기준은 ①경관이 양호한 곳 ②텃밭 딸린 곳 ③5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지 ④마음이 편한 곳 ⑤민박가능지¹⁾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나머지 1천만 원으로 취미농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1천만 원을 잘 사용하기 위해 텃밭은 가까이 있어야 하며 ①농약 안하는 품목 ②발효식품이 가능한 품목 ③저장이 가능한 품목 ④능력에 적합한 품목 ⑤지인들이 좋아할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취미농을 할 준비는 충분하다.

1) www.welchon.com에 들어가 약 1,700개 중 한곳을 선택 전국마을 35,900개가 있으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전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은 농림부가 지원하는 이 사이트에서 선택할 것.

- 다음 단계로는 지인 열 가족을 모으자.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도시에서부터 취미농과 주말농장을 경작해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모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도시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열 가족을 모을 수 있다.
- 열 가족이 모아졌다면 매년 2월에 먼저 1백만 원을 받고 2주에 한 번씩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과 시골소식을 전한다.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자신이 할 일이 정해진다.
- 봄에는 산나물을 보내주자. 여름에는 자신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게 하자. 가을에는 과일과 발효액기스를 보내자. 수확한 농산물을 보내자. 겨울에는 함께 김장을 만들고, 초봄에는 장류를 같이 만들자. 이것이 100만 원이라면 비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도시에서부터 농사를 연습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중요한 계획들 요약정리

- ①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하라 *선귀촌 후귀농
- ② 보통 사람이 도시에서 은퇴 이후 대안마련이 어렵다.
*선대안 마련 후 장소 선택
- ③ 10인의 후원자를 만들라(가족과 지인이 후원자가 되도록 함)
*선신뢰 후후원
- ④ 은퇴 후 일과 취미와 봉사를 공유하라
- ⑤ 은퇴 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라

3.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귀촌하기

3.1. 가족의 동의가 귀촌의 기본이다

- 가족의 동의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무기와 같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팀워크와 같다. 언제나 일치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귀촌은 일종의 “사회적 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워 보여도 쉽지 않다.
- 먼저 가족의 동의는 부부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동의도 중요하다. 주변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언제쯤 농촌으로 향촌할 것인지를 알리는 커밍아웃도 필요하다. 또 농촌에 돌아가 제2의 인생을 보낸다는 귀촌서약서도 작성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3.2. 실제 충분한 준비기간과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별한다.

-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한 것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잘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성과관리는 반드시 수치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가족간 시골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3.3. 반농반도시로 시작계획

- 그렇다면 실제 시골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

을 발견해야 한다.

- 반농반도사는 자신이 도시에서 수십년 생활하며 직장을 다닌 경험속에서 성공사례를 찾아야 한다.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농촌의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융복합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도시는 농촌보다 정보, 사회, 경제력이 앞서나가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농촌에 결합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농반도사의 사례: 부여 은산면 거전리의 A씨

- A씨는 도시에서 자동차정비를 하다 귀촌했다.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자동차, 농기계, 예초기 등 기계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다.
- 예들 들어 경운기가 고장나면 이곳 농부는 나홀을 못 쓴다. 고장 난 날 전화로 부여 읍내 농기계 수리상에 연락한다. 면에서도 수리상이 있지만 부속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여읍내 농기계 수리점의 직원이 오면 무조건 출장비가 5만 원이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지만 문제가 크면 농기구를 싣고 부여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하루 내지 이틀이 걸려 고쳐 오게 된다. 비용도 모두 20~30만 원 가량이 든다. 농부입장에서 보면 나홀이 손해이고 꼭 농기구는 농번기 때 말성을 부린다.
- A씨는 자신이 직접 고장난 농기구를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속을 직접 부여나 논산, 대전 등지로 가서 사와서 고쳐준다. 모두 반나절정도면 고쳐진다. 마을 어른에게서 받는 것은 부속값 뿐이다. 농부들은 한없이 고마워 할 따름이다. 대신 농부들이 해 주는 게 있다. “A씨 고추밭에 역병오겠어. 약 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약을 쳐야 할지 잘 모른다. 성질 급한 할아버지 밭에 가면서 약을 쳐 준다. 하는 김에 제초도 말끔히 해준다. 이것이 반농반도사이다.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정신. 우리가 근대화과정 30년 동안 잊었던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3.4. 귀촌자의 계획

- ① 시골에 자주 내려가는 연습을 하라 : 기회가 있으면 시골에 내려가 현지인과 이야기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생각한다.
- ② 가족끼리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 도시생활은 가족 모두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을 해 나간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공동의 일, 분업이든 협업이든 연관성이 있도록 하고, 이것을 이어가면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라.
- ③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농관련 취미생활을 즐겨라: 공동으로 하는 과수재배, 목공예, 도예, 숯만들기 등 뭐든지 좋다. 시골에 내려가면 같이 할 수 있는 테마를 취미삼아 하라.
- ④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라: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라.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급적 상업성이 배제된 친목카페를 선택해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라.
- ⑤ 인터넷에 들어가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에 나온 정보를 숙지하라: 주 1회 이상 농관련 신문을 읽어라. 신문에는 최신정보가 들어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정책정보, 기술정보가 들어 있다.
- ⑥ 텃밭농사를 시작하라: 텃밭농사는 3평 정도에서 시작한다. 농사는 4월 시작해서 10월 마친다. 어려워도 1년 단위로 주말농을 해라. 수확물은 지인들과 나누어라. 이들이 장래에 당신의 고객이다.
- ⑦ 불편함, 느림, 배려를 생각하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도시에서는 어려워도 자주, 불편함을 감수하고 명상을 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라. 느림과 배려, 타인과의 공생을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라. 공생과 배려의 기본은 봉사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시골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진다고 보면 된다.

- ⑧ 자녀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골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라: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골에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라. 가급적 돈 들이지 말고 가내 수공업 형태로 해 나라. 그것이 성공비결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공장 세워도 된다. 먼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팔아야 한다.

4. 귀촌의 시작은 귀농교육

4.1. 3년 전부터 도시에서 귀농준비

- ①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10평까지 늘려라: 귀촌계획이 수립됐다면 다양한 농산물을 재미로 재배하는 취미농 생활을 즐겨라. 가급적 면적을 3평에서 시작해 2~3년 경험을 통해 10평 품목을 10~20가지까지 늘려보라. 너무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취미와 재미, 그리고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라.
- ② 농소정사업에 참가하라: 농소정사업이란 농민, 도시소비자, 정부가 농촌을 알리고, 가꾸고, 살리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농촌체험을 하려고 전국에서 참여한다. 비용은 1인당 1~만 원선. 밥 주고, 체험하고 마을소개도 해준다. 공무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 유지들이 다 참석한다. 여러 마을을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마을이 생기게 된다. 그 마을을 재방문하고 진짜 마음에 들면 후원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그 마을에 정착하라. 가장 저렴하고 실속있게 농촌을 방문하는 방법이다.
- ③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습득하자: 웰촌닷컴, 흙토람, 온나라, 귀농사모 등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 이들 정보를 활용하라 웰촌은 약 1,700개의 전국의 자주력, 자조력이 있는 우수마을을 소개해 논 사이트이다. 이런 마을에

가면 좋다. 토포람은 토양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다. 전국을 지번단위로 파악할 수 있고 적합한 농작물의 표식까지도 가능하다. 보물같은 자료다. 온나라는 국토부의 지번도이다. 네이버 위성도와 지번도를 합쳐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각종 도시계획,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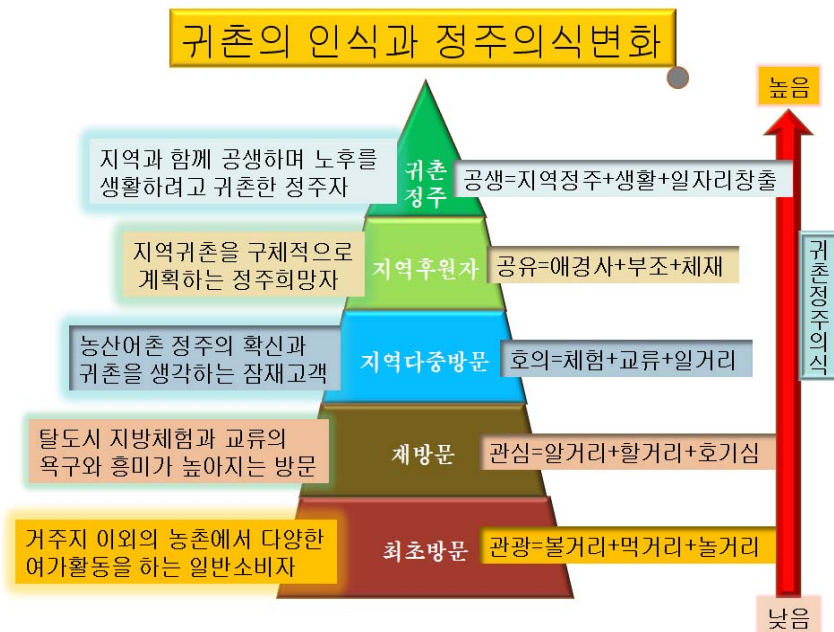
- ④ 꼭 귀촌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 하라: 귀촌교육은 점점 확대되어 바람직하게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 귀촌컨설팅 정부 지원제도가 현재 없지만 꼭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계획이 적합한지 잘 계획되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컨설팅을 받을 때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말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약식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 이것을 지침삼아 활용해야 한다.
- ⑤ 도시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라: 도시의 지인, 가족, 관계자는 자신의 농촌 생활을 도와 줄 조력자이다. 이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이들과 더불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관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다. 간단하다. 안전, 안심, 신선,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농촌에서 잘 사는 길이다. 본인이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농산물이 2안 2신에 적합한지 본인이 확인하고 확신이 들 때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

4.2. 실질적인 현장체험교육

- 귀촌인들이 가져야 할 개념 중 중요한 것은 농산어촌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농림어업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이해,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농민, 농업, 농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귀촌은 사회적 이민으로 단순한 농사준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성공할 수 있다.
- 시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접촉과 이해, 협조 일체화과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농림부의 농소정사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농촌접촉을 어린이 체험학습 시절부터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농업은 농기술+판매기술+경영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것과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를 이해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즉, 가격결정의 중요성과 농민이 원재료의 경우 가격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마을 선정을 위해 많은 방문이 필요하다. 웰촌닷컴에 있는 약 1,700개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특산품과 그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지역의 키맨을 찾아낼 수 있어야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 이러한 과정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최초방문→재방문→지역다중방문→지역후원자→귀촌정주까지의 단계를 거쳐야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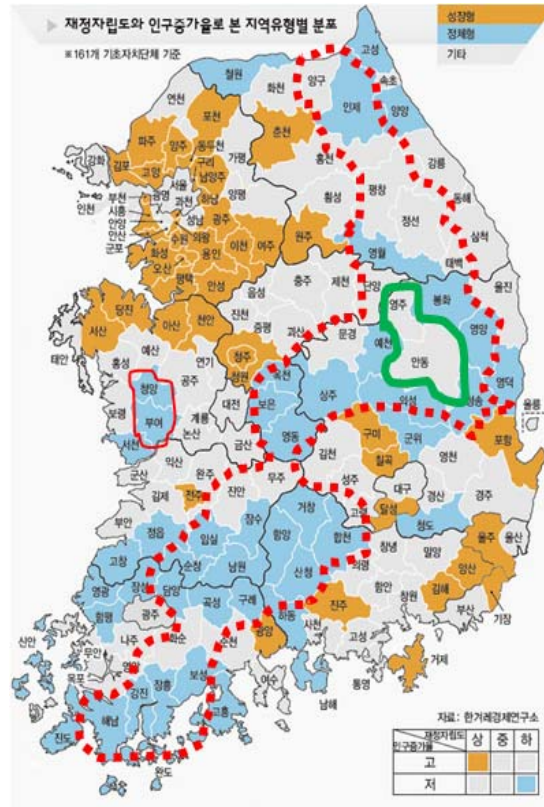
5. 귀촌지역 선정하기

5.1. 지자체의 지원 등 여러 가지 고려한 지역선정이 중요

- 귀촌지역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가지 있다. 그 중 어디로 갈 것인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두가지가 결정되면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백두대간으로 가라.
2. 쌀 땅을 찾아라.
3. 산촌을 찾아가라.
4.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라.
5. 먼저 임대나 전세를 1~2년 살고 정이 들면 땅을 사라.
6. 시골은 서울이 아니다. - 환금성이 제로라는 것을 명심하라.
7. 토지거래는 공시지가의 3배 이하에서 하면 성공이다.
8. 삶터는 겨울에 결정하라 - 벗겨놓고 보면 토지를 알 수 있다.
9.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을 결정하고 농업을 결정하라.
10. 농업을 먼저 결정할 경우 지자체 지원조건을 따져라.
11. 농업은 사양산업이다.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를 선택하라.

-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임대 후매입’, ‘선귀촌 후귀농’과 같은 원칙들이다. 아래 붉은 점선안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지가가 저렴한 부분을 표시한 구역이다. 이들 구역으로 간다면 최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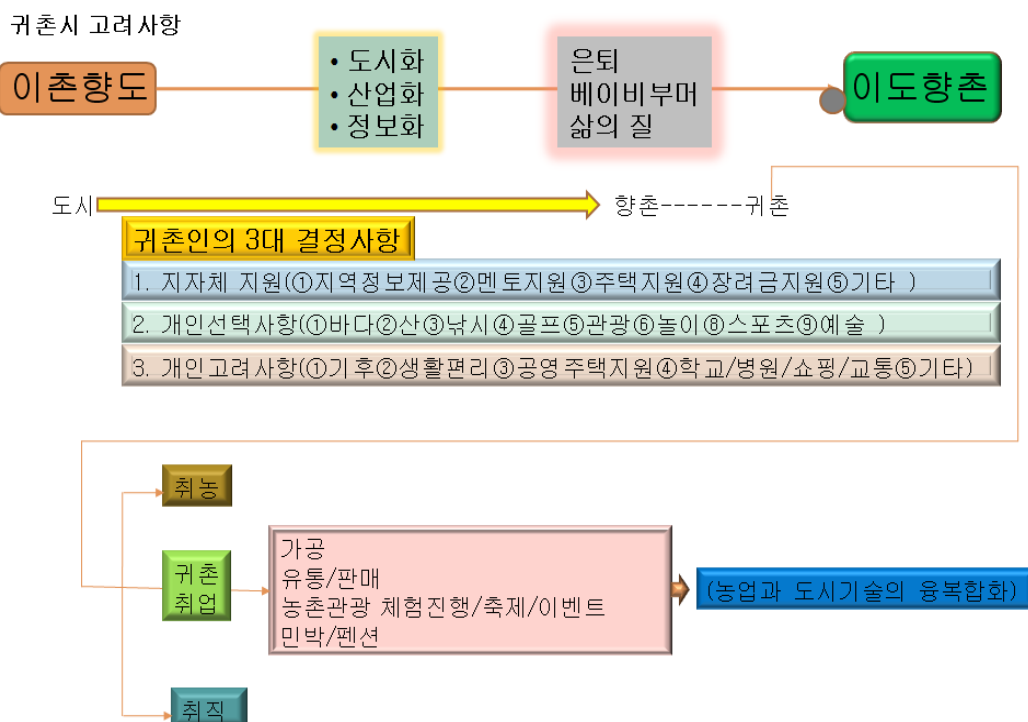


- 향촌귀촌의 유형을 크게 여유형, 필수형, 전략형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유형은 귀촌을 해야 할 유형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어느 지역이나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2시간 이내의 경관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양평이나 남양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필수형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도시에서는 장차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베이비부머의 40%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레드존으로 귀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지가가 낮고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이어서 지자체의 인구유입을 환영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 전략형은 자신의 향촌의 목적이 명확해 지역선정보다는 사업유형이 중요한

유형으로 예를 들어 성주에 가서 참외농사, 상주에 가서 꽃감농사, 무안에 가서 양파농사 등 자신이 품목이나 사업유형을 미리 정한 경우이다.

5.2.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이도향촌의 경우 고려할 사항

- 먼저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나타내는 소개서가 없으나 일본의 경우 2년 단위로 지자체 지원 매뉴얼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향촌민들에게 지원할 사항으로는 ①지역 정보 제공 ②멘토지원 ③주택지원 ④장려금지원 ⑤기타로 이러한 지원사항이 어떤지 자신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여건에 대해서는 지역매력을 먼저 파악한 이후 지원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자신의 취미선호도를 통해 선택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것도 요구된다. 즉, 자신이 바다, 산지, 관광지, 역사지, 생태지, 농업지, 예술지, 휴양지 등을 갈 것인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한다. 귀촌을 하려면 이러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바다가 보이는 곳, 늘 역사나 예술이 일어나는 곳, 농업을 하는 곳, 어디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진다. 가급적이면 복합적이면 좋다. 바다가 보이면서 산지이면서 관광과 휴양을 하고 생산도 되는 곳 찾아보면 있다.
- 마지막으로 개인이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개인이 선택이전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후의 온화성, 생활편리, 지자체의 주택지원, 학교, 병원, 쇼핑, 교통 등이 고려대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못하고 결정되었을 때 많은 후회를 할 수 있고, 결국 재향촌 혹은 도시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향촌을 해서 ‘선학습 후선택’을 해야 한다. 취농을 할지 창업할지, 취직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5.3. 실질적인 지자체의 지원모습

- 아직까지 향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치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대치되는 지자체도 많다. 귀농교육을 받으면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어야 하는데 연령제한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

부정적 사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

- 사례 1: 농식품부 귀농·귀촌교육을 받고 고향에 귀촌하려고 하나 60세가 넘는다고 귀촌창업자금지원을 못하겠다고 함.
- 사례 2: 귀촌과정상 지역결탁형 문제점: 과도한 정화조 설치비용, 과다시설 요구형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긍정적 사례: 좋은 이미지의 지자체 지원 유형

- 사례 1(진안): 귀촌자들의 일자리를 약 20여 개를 창출해 안정적인 귀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2(봉화): 귀촌인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가 저가로 귀촌인에게 공급
- 사례 3(상주): 민간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해 상주시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운영

향후 예상되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안문제	신 사업구상 내용	
농림 수산 식품 부 귀농 · 귀촌 정책 사업	체계적인 귀농·귀촌교육 지역내 소통 및 갈등해소기구 마련 생계형 귀농의 경제적인 어려움 농지구입 및 임대문제 주거지 확보문제 맞춤형 귀농·귀촌지 선정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소득원 선정 행정지원 및 정부지원관련 서류 농한기 취업문제 지역의 냉대와 편견 농촌사회 적응상 고민해결의 어려움 건강 및 노후생활문제 마을내 대인관계 및 기타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 귀농·귀촌 방문교육사업 시도별 귀농·귀촌지원기금 조성 귀농·귀촌인 지역공부방 사업 귀농·귀촌인 맞춤형 취업 지원 귀농·귀촌인 행정인턴 채용 귀농·귀촌 정책모니터 활성화 귀농·귀촌자녀 지역적응교실 운영 귀농·귀촌 초등학교생 자녀 학습 지원 귀농·귀촌 소식지 ‘귀농 세상’ 발행 귀농·귀촌지원 실무 추진협의회 운영 귀농·귀촌인 소득개선사업 추진 시·군단위 귀농·귀촌인 정착교육 시군 귀농정책 위한 귀농상담사 운영	자료 ·· 그린 코리아 컨설팅 내부 자료

- 현재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코디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귀농·귀촌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하고, 지자체 특성을 나타낸 귀농·귀촌 정착지원 매뉴얼 발간 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표와 같이 정책모니터링, 자녀학습지원, 소득개선사업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6. 집과 일자리구하기

6.1. 집을 선정하는 데 조심할 것들과 고려할 것들

- 귀농·귀촌 시 주택 선정에 있어 유의할 것과 고려할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지역에 살아 본 후에 구입하라. 적응 못하면 반값에 팔고 나온다.
 2. 농지는 기후와 미기후를 판단하고 작목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2년 농사를 지어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3. 땅과 청춘은 한눈에 반하면 낭패다. 보고 또 보고 관찰하라.
 4. 남향과 배산임수를 선택하라.
 5. 물과 전기는 생활의 기본이다.
 6. 너무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지 말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망각하지 말라.
 7. 농공단지 주변지역을 고르는 것도 지혜이다. 농사는 주말이나 아침, 저녁에도 가능하다. 고정적인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8. 주변에 선도농가가 있는지 확인하라.
 9.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10.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살기 좋다.
 11. 수맥이 흐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터는 싸도 비지떡이다.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곳을 골라라.

- 실제로 집을 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표적인 것이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이다. 둘째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책이 선임대 후 구매이다. 먼저 지역에 살아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적당할 때 사거나 건축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아니면 다양한 교류와 체험을 거쳐 지역민이 되는 앞의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집 구하기가 예상보다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앞서 제안한 양부모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 일본 사례 >

**빈집 757만 채, 전체 13% 주택정책, 공급에서 빈집관리로,
경관 해치면 주인에게 과태료, 강제철거 후 비용 청구하기도**

- 1960년대 도쿄권 근교 도시로 인구가 급증했던 이바라키(茨城)현 우시큐(牛久)시는 요즘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빈집에 잡초가 뒤덮여 벌레가 대량으로 생기고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우시큐시는 최근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빈집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개보수 비용과 이사 비용 등 최고 50만 엔(약 715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2011년 현재 일본의 10여 개의 지자체에서 빈집지원조례 준비 중이다.

6.2.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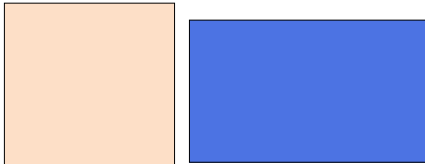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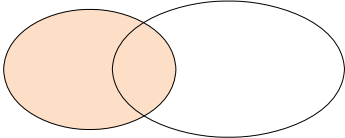
-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향촌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생산성이 있는 농공단지와 지역특산물, 귀촌자가 서로 유기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금산군의 사례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정착지원사업, 관련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가 현재 우리나라에세 제일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사례지로서는 금산, 봉화 고창, 진안, 상주, 강진, 등이 있다.
- 하지만 일본의 경우의 10% 정도의 실적과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 내 내수기반과 귀촌자의 연계, 반농반도시의 철저한 실천, 리쿠루트 등 일자리소개회사의 참여 등을 주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7. 지역민과 하나 되기: 아가잘있나?

7.1. 튀지 말고 지역민과 하나 되기

- 지역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시·군이나 정부지원금에 현혹되지 말라
 2.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
 3. 지자체별 귀농조건이나 성격을 분석하자
 4. 자신의 소신이 대부분은 옳다. 그래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자.
 5. ‘선소득 후소비’의 정신을 잃지 말자.

6. 돈 쓰면 편하지만 남는 것이 없다.
 7. 농지원부를 작성하라
 8.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견학, 토론회는 찾아가서 배워라
 9. “아가잘있나”를 매일 외워라.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말기, 나를 낮추기.
 10. 교육만이 알 수 있고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라.
 11. 가급적 도시의 끈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라 - 집(월세), 통장(복리저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²⁾에 의하면 적극적이면서 마을일에 잘 참여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귀촌정착에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귀촌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신의 정리가 잘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지역민과 하나되고 지역의 정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도시유형(불침범/존중/무관심)	 농촌유형(공동체중시/간섭/책임/일체)
---	--

- 시골생활은 도시생활과 다르다. 도시에서는 앞의 그림처럼 서로 존중하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간섭과 책임, 일체감을 소중히 생각한다. 여기서 도시와 농촌의 갈등이 대두되고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까지 손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 농촌에 귀농 후 적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 성주인, 2011. 농림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마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원부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도 지역의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위의 표와 같이 보여주어야 한다.

1. 농지원부와 농협조합원이 되라
2. 면사무소 산업계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선을 만들어라
3.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인사를 잘하라.
4. 마을의 정서를 이해하고 따르라 - 관습과 상식을 존중하라
5. 마을에는 농업과 생활멘토, 지역에서는 후견인을 만들어라.
6. 정부지원금을 먼저 달라고 하지 말라. 지역에는 위계와 순서가 있다.
7. 먼저 실적을 내라. 그러면 지자체가 도와준다.
8. 긍정적인 사고와 일과 취미, 봉사를 실천하라
9. 건강과 가족, 친구를 챙겨라
10.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주변사람들에게 묻고 나서 해라. 보험을 들어놓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11. 반드시 흑자소득구조를 만들 사업계획을 세워라
12. 탐색기는 2년이면 충분하다. 3년차부터는 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라

7.2. 마을과 동화실패

- 모든 사람들이 향촌귀촌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마을과 유리된 나홀로 삶을 추구하거나, 마을 일에 협조하지 않고, 마을의 정서와 관습을 무시하고, 또는 내가 잘났다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성이 덜 발달된 유형이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패요인을 살펴보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팔린다는 오해, 마케팅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지역특성, 기호, 미기후, 토양, 토질의 무시 등이 작용한다.

7.3. ‘아가잘있나’의 중요성!

- 결국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촌향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도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로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골생활을 하는 데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아가잘있나’로 표현한다.

가. 아는 척 하지 말기 :

- 도시에서 귀촌향촌하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상식은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농민들의 저학력, 무관심, 정보제한 등의 이유로 지식이나 상식이 떨어지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된다.

=> 거꾸로 귀촌자의 영농기술이나, 약제사용, 기후 풍토, 지역의 역사를 모른다고 당신을 무시하면 기분 좋겠는가. 따라서 조화로우미 요구된다.

나. 가진 척 하지 말기 :

-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 자동차가 최고급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농촌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농촌에서는 수만 평 농지를 가진 사람들도 겸손하게 살아가고 허세부리지 않는다. 당신이 재산이 있어보아야 그들의 수십분의 1정도이다. 물론 못 살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자랑하지 말고 윈손 모르게 선행을 쌓자. 그러면 넘칠 것이고 그러면 이웃들이 알고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다. 잘난 척 하지 말기 :

- “내가 말이야, 왕년에”로 시작하는 무용담은 시골에서 별로 큰 도움이 안된다. 대부분이 노인이고 인생을 달관한 초월한 분들이다. 이제 황혼역에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잘난 것이란 건강 이외에 별로 필요없다.

- 잘난척은 비슷한 부류에서만 통한다.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잘난 척이지 실제 마을에서는 필요없다. 과감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못난 사람으로 통할 것이다.

라. 있는 척 하지 말기 :

- 교양이나 자랑, 예술, 철학 여러 가지로 있는 사람은 보기 좋다. 집에 좋은 유명화가의 그림이라도 있으면 좋다. 하지만 시골에서 그런 교양을 바라지 말라. 시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중요시하고 농업이라는 생업에 충실하다. 교양을 장식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라.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류의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주 그런 말을 할 때 당신과 멀어질 것이다.

마. 나를 낮추자 :

- 나를 낮추고 겸양과 배려를 갖춘 사람으로 마을에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나를 주장하기 보다는 마을의 관습을 존중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을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을 외지사람 하나가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라. 먼저 적응하고 마을사람이 된 연후에 서서히 변화시켜도 늦지 않는다.

8. 고부가가치 농산업 개발

8.1. 농창업의 중요성

- 귀농·귀촌 후 영농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반드시 취미농부터 시작하라

2. 귀농 1년차부터 흑자보는 계획을 세워라
 3. 농사는 농민에게, 나는 그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을 하라
 4. 반농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업농의 유혹을 물리쳐라.
 5. 매년 농업경영비는 올라가도 가격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
 6.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이 FTA를 체결하는 나라이다. 결국 농산물가격은 더 싸지면 싸졌지 오르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7.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라.
 8. 사업계획서와 BC분석은 기본이다.
 9. 간단회계장부를 기입하라
 10. 판매가 생명이다. 가급적 직거래를 지인들과 하라
 11. 관행농업은 농민이 전문가임을 명심하라
- 귀촌인이 생각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민은 생산, 귀촌인은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이다. 즉 협업화, 분업화를 하는 데 향촌, 귀촌인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 이것은 지역에서 갑으로 사는 방법이자 농민과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방안임을 명심하라. 농창업으로 부가가치를 붙이고 지역의 브랜드를 붙여 팔라. 가급적 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게 해라. 명품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품을 사러 생산지로 온다.
- 이를 위해 생산 이외의 것에서 소득내기가 중요한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즉 지역어메니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농장, 공장, 저장, 시장, 난장을 만들어 지역 부가가치와 소비자 신뢰도, 브랜드파워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귀촌향촌인들이 해야 할 사항은 농장=취미농, 공장=가내수공업, 저장=개인저장고마련, 시장=지산지소와 마을시장개설, 난장=마을축제와 이벤트를 통한 판매 등을 알아야 가능하다. 즉, 생산은 농민에게 판매와 마케팅은 귀촌향촌인들이 해야 마을이 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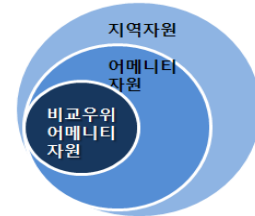
-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 5장으로 풀어서 설명(①농장②공장③저장④시장⑤난장)
- 어메니티자원이 상품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민, 행정, 전문가의 결합이 중요

어메니티자원 상품화

- 타지역에 비해 차별화 될 수 있나
-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 어메니티자원이 핵심
- 자원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가

어메니티자원 융복합화의 개념

	농 장	공 장	저 장	시 장	난 장
1차	농산물생산				
2차		농산물가공			
3차				농산물판매 (지산지소)	
복합			종산물저장 (EX:발효,배)		농산물축제 이벤트 등



- 개념정립
- 양적 증대
- 질적 전환
- 가치성립
- 소비자 신뢰
- 브랜드파워
- 지역발전

-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어메니티 경관이다. 어메니티 경관을 보전하고 창조하는 것은 지역이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생산은 취미농 수준으로 하고 주변 농산물이나 우리농산품으로 가공을 하라. 가공에서 얻은 산물을 저장하고 이를 민박이나 펜션, 도농교류 등으로 팔아라. 마을축제로 지역에 재미와 감동을 주고 농산물을 팔아라.
- 이것을 종합화 융복합화하여 민박+축제+이벤트+도농교류로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
- 결국 지역을 종합화하는 것이 민박, 축제, 도농교류 등이다. 체재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팔고 지역을 알리고 주민과 도시민이 교류하고 친구를 만들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향촌과 귀촌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다.

8.2. 고부가가치산업과 도시에서의 경험 재활용하기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반농반도시이다. 자신이 도시에서 가진 기술, 경

영능력, 마케팅능력을 지역의 농산물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분야에서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 평창 개수리의 오종근 이장은 매실을 종합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농업, 가공, 저장, 판매 등을 창조한 사례이다.
- 평창 개수리의 신성금 부녀회장은 매실엑기스 생산이 어렵게 되자 과감히 해남에서 매실을 생산해 엑기스를 만들어 이것으로 다양한 초절임을 생산해 소득향상에 힘쓰는 케이스이다.

9. 3년 안에 연봉 1억 만들기 8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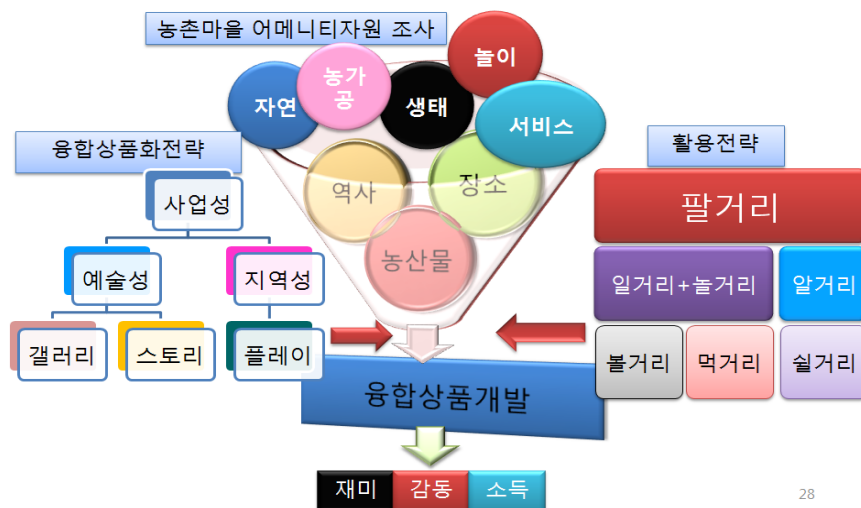
- 귀농 후 자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가내수공업은 작게, 난장(이벤트)은 크게
 2. 저장(된장, 고추장, 발효, 술, 식초등)되는 것을 하라.
 3.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노후생활을 안정시킨다.
 4. 마을을 가꿔라
 5. 교육과 견학은 연 5회 이상 참가하라
 6. 도시민의 고객만족이 성공임을 명심하라
 7. 욕심부리지 말고 소박한 삶
 8. 자신의 농산물을 팔아 줄 10가족을 만들어라
- 귀촌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다. 가급적 흑자구조를 이루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자. 도시에서 하던 일을 농촌에서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 선귀촌 후귀농, 선취미농 후전업농, 선친교 후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농민과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농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원적 요소가 도시민이 참여해서 융합상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위의 깔데기이론은 농민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민이 귀촌향촌해서 같이 만든다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농사는 취미농/취면서 농사짓기
- 도시에서의 하던 일을 농촌에 전파하기
- 농사는 농민이 귀촌인은 가공과 유통 판매
- 자신과 지역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업마련
- 자조적 소득이 자립적 복지로 이행
- 귀촌창의성과 도시네트워크를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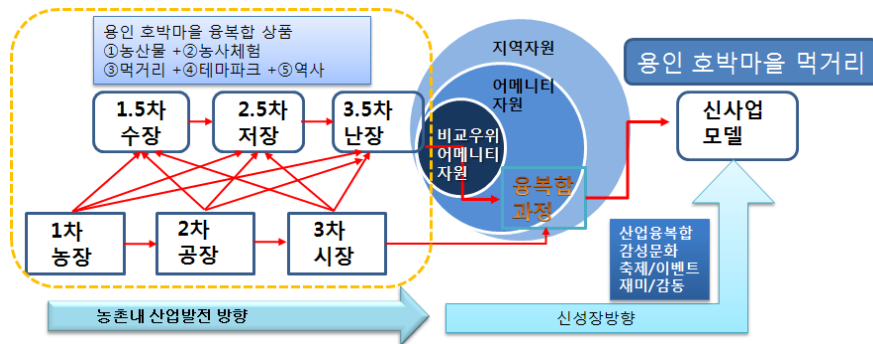


선귀촌	후귀농
선취미농	후전업농
선임대	후매입
선친교	후사업
선교육	후개업
선존중	후개선
선다품종	후선택
선동의	후귀촌
선소득	후소비
선마케팅	후생산



28

- 용인 호박마을의 경우 마을의 약점을 귀촌한 사람들이 보완해 점차 성과를 나타내는 마을이다. 호박을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출하하고 체험학습과 주말농장도 운영한다. 이제는 이벤트 축제도 활용해 새로운 모델로 성장하는 마을이다.



9.1. 가내수공업은 작게 난장(이벤트)은 크게

- 귀촌향촌인들은 가내수공업을 해야 한다. 즉,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가공하고 액기스도 만들고, 술도 만들어 팔아야 한다. 이것이 규모화되면 정식으로 허가도 내야 하지만 전시판매를 하지 않는 영세규모는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난장은 크게 홍보해 벌여야 한다. 평창의 대하리 산채 으뜸마을의 경우는 마을단위 축제에서 의미를 갖는다. 5월 마지막 주 토, 일에 열리는 산채 축제에 전국에서 3~5천 명이 참여해 모든 장류와 산채류를 팔아준다. 앞에서 설명한 신성금 부녀회장은 연수익 1억 원이 넘는다. 중앙일보도 신성금 씨를 사회면 톱으로 소개할 정도이다.

“나물 캐는 산골 ? ... 연 1억 버는 집도 여럿”

푸른 농촌 희망 찾기<중> - ‘곤드레나물 마을’ 평창군 대하리

[중앙일보] 입력 2009.11.10 19:27 / 수정 2009.11.11 09:23

- 지금은 보라색 곤드레꽃이 피는 시기. 산채 으뜸마을 신성금 부녀회장(앞)이 마을 밭에서 곤드레나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나물 키워 얼마나 벌겠느냐고? 우리 마을에서 한 해 1억 원쯤 버는 집이 네 집이야.”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이용선(60) 이장은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대하리는 ‘산채 으뜸마을(www.sanchae.co.kr)’로 불린다. ‘곤드레 나물’을 특산품으로 키워 팔기 때문이다. 이 나물 덕에 모두들 풍족하게 살게 됐다. 이병기(67)씨는 주머니에서 두둑한 곤드레나물 온라인 판매전표를 꺼내 보이며 “곤드레나물이 이렇게 잘 팔려 올해는 대학생 손자 세뱃돈을 20만 원 쫓드래요(쫓어요)”라고 말했다.
-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하리는 전형적으로 퇴락해가는 강원도 산자락 농촌이었다. 90여 명뿐인 주민의 절반이 60세 이상. 옥수수과 감자를 재배하고 마당에 닭 몇 마리 놓아 생계를 잇는 게 보통이었다.
- 2003년 평창읍내에서 식당을 하던 이용선 이장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다. “식당 손님들이 여러가지 산채 나물 밑반찬 중에 곤드레나물만 자꾸 더 달라는 거야. 이거 키워 팔면 되겠다 싶었지.”
- 그는 이웃에게 곤드레나물을 키우자고 설득했다. 처음엔 다들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산에서 뜯어먹으면 그만인 걸 누가 돈 주고 사겠느냐는 투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성이 통해 한번 해보자고 몇몇 가구가 재배를 시작했다.
- 첫해가 지나자 주민들 생각이 달라졌다. 소득이 옥수수의 두 배 이상이었다. 가격(냉동 나물 4kg에 1만 6천 원)은 옥수수와 비슷하지만, 농약·비료를 주지 않아도 쭉쭉 자라 원가가 별로 들지 않았다. 매년 심어야 하는 옥수수와는 달리 한 번 심으면 3년간 나물 잎을 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농촌진흥청도 주민 대상 강연회를 열어 ‘하던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변화를 해야 잘살게 된다’는 의식을 심었다.

- 자극을 받아 다들 곤드레 나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판로 넓히기에도 나섰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2005년부터는 매년 5월 말~6월 초에 곤드레나물 축제를 열어 도시민을 초청했다. 마침 불어닥친 웰빙 바람도 땀다. 곤드레나물에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그만인데다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먹혔다.
-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곤드레 장아찌·김치·차도 개발했다. 곤드레나물 밥·떡·죽·튀김·국 등 각종 요리법도 만들어 보급했다. 요즘은 5월 말~6월 초에 나는 곤드레나물을 사시사철 공급하려고 온실재배도 하고 있다.
- 그 덕에 지난 해엔 곤드레나물을 팔아 역대 소득을 올린 농가가 나왔다. 산채으뜸마을에 따르면 쌀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에서 쌀밥 집을 하다가 ‘평창 곤드레나물 밥집’으로 이름을 바꾼 곳도 있다. 마을 부녀회장인 신성금(54)씨는 “곤드레나물로 성공한 덕에 대학과 다른 지역 농협으로부터 초청받아 강연까지 하고 다닌다”고 자랑했다. 이용선 이장은 “앞으로 곤드레나물을 비롯한 각종 산채 뜯기·맛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마을 소득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9.2. 저장(된장, 고추장, 발효, 술, 식초 등)되는 것을 하라

- 저장되는 물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발효+식초 혹은 발효+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술과 식초는 상극이 되어 술이 식초로 변하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발효는 설탕이 과당으로 변하는 약 2년 정도 충분히 발효시켜 3년차부터 판매하면 약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9.3.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노후생활을 안정시킨다

- 안전한 농산물은 가서 직접 확인하면 이후에 직거래로 이어진다. 즉, 안전, 안심, 신선, 신뢰의 2안 2신의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관행농을 계속 한다면 향후 고객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작은 규모의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수천 평의 전업농은 기계화와 약제살포는 기본이 된다. 농업경영비가 갈수록 상승하는데 이 방법은 점점 농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9.4. 마을을 가꿔라

-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면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에 온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몰려오는 이치와 같다. 마을이 볼거리와 먹거리 쉼거리가 있다면 농산물을 팔기는 참 쉽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축제와 이벤트로 재미와 감동을 주면 된다. 그렇다면 농산물은 부수적으로 팔리고 교류와 체험, 축제가 있는 마을로 변모한다. 이것이 어메니티마을의 특징이다.

9.5. 교육과 견학은 연 5회 이상 참가하라

- 마을이 잘되고 귀촌향촌인이 잘 적응하려면 교육과 견학을 빠져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바빠도 교육을 참석하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정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지식창고이다. 견학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교육과 견학은 연 5회 이상 스스로 찾아 가야 한다.

9.6. 도시민의 고객만족이 성공임을 명심하라

- 도시민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줄 은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도시

민과의 인연을 끊어서는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지인, 가족, 친족, 회사 선후배, 학연, 지연 등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 개인이 대기업이나 농협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까지 도시고객을 확보하고 지켜야 한다.

9.7. 욕심부리지 말고 소박한 삶

- 욕심을 충족하는 만족이란 없다. 작고 소박하고 스스로 부담가지 않는 생활을 하라. 안빈낙도 그것이 귀촌향촌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적어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건강=가족=친구’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또 ‘일=취미=봉사’도 생활화해야 한다. 이 두 그룹을 챙긴다면 당신은 멋진 귀촌생활을 즐길 자격이 있다.

9.8. 자신의 농산물을 팔아 줄 10가족을 만들어라

- 자신의 농산물을 팔아 줄 10가족을 모아야 행복해 질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10명의 후원자가 나의 생활을 지켜주고 나는 양부모를 모시며 서로 상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귀촌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이다. 이 부분을 국가가 할 수 없다.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 공익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자립적 복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부국강병과 부국강복을 이룬 최초의 나라로 역사에 명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정영일(서울대 명예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농촌이 처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심도 있고, 현실 경험에 바탕을 둔 세미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철 지역발전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너무 큰 담론보다 시범사업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팀이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하 지정토론자 소개)
- 오늘의 토론은 귀농·귀촌 문제에 있어서 핵심과제와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타개할 해결책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정토론자들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정토론 후 플로워에 게시는 의견들도 경청할 예정입니다. 지정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정도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발언이 필요하다면 차후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현장에서의 말씀부터 듣고 이후에 정부에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정토론자: 박용범(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환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환의 선생님의 방법을 귀농의 표준모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농자가 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환의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과 더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부연하자면, 우선 귀농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귀농학교를 통해서도 귀농이 이루어지지만

집짓기강좌, 염색, 텃밭교육, 도시농부학교, 소농학교, 장애인 귀농학교 등 유사한 다양한 강좌들을 통해 귀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편, 도시민들은 도시락(都市樂)을 놓지 않고 귀농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을 배우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예비 귀농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귀농학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갈등에 대한 태도라든지, 자기의지, 귀농정책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귀농학교를 통하여 농업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농하면 안 될 분들을 추려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도시농업 등의 중간 정도의 농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 귀농학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특산물 또는 주품목이 있습니다. 반면에 귀농인들은 ‘어떤 품목 농사를 짓고 싶다’ 정도의 다소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품목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논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교육은 귀농·귀촌 후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이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귀농·귀촌 도서 등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 매뉴얼은 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는 그 지역, 그 마을에 적합한 현장 밀착형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장형 매뉴얼을 가장 잘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이환의 발표자와 같이 이미 그 지역에서 정착한 귀농·귀촌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현장형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멘토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멘토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멘토관계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화했을 때, 인건비 문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보의 전달체계, 연락체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멘토는 전문가보다는 귀농인 그룹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배 귀농인들이야말로 중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상오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반농반사’에 대하여 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바로 귀농해서 정착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전문지식을 활용한 직업을 갖고, 남편이 귀농인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반농반사가 ‘사’쪽으로 너무 치우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대부분으로, 미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농’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앞서 ‘양부모 갖기’ 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들은 안정되어 있는 반면, 귀농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분들이 ‘의형제 맺기’, 또는 ‘양부모 갖기’ 등을 통하여 서로 보완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마을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발소, 식당 등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없이, 단지 농사짓는 사람만 존재하는 곳은 촌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정책은 소득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개인적인 소득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투자는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데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의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마을도 살아나고, 마을 주민들 간의 위화감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이 이러한 투자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시현 본부장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인력균형발전’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에

쓰일 예산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업무가 각 지자체마다 부수적인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대통령 산하에 ‘귀농·귀촌특별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창구로서의 독립된 업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빈집정보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는 빈집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빈집의 주인들은 그 빈집을 타인에게 쉽게 양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클라인 가르텐(체류형 주말농장)’은 실패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은 도시근교에 설치하여 주말농장의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클라인 가르텐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 의미가 변색되어 먼 지역에 있으며, 마치 ‘별장’이나 ‘펜션’처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사례로 소개되었던 장기귀농예비실습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도 소농학교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2년 과정은 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 교육을 통하여 귀농희망자 스스로도 자신이 과연 농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진군의 경우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 지원 조례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만들었습니다.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이를 바탕으로 자기 지역의 조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강진군은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례로 강진군에 귀농한 50대 중반의 임정구씨는 단돈 10만 원을 가지고 강진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귀농할 마을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군에서의 전폭적인 지원(3천만 원 보조금), 자신의 투철한 의지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지원금이 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어떤 귀농인에게

지급이 되어 농기계 1대 가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귀농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농지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농지가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귀농인이 귀농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을 꼽으라면 농지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촌인의 토지 구입을 통해 농지가격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귀농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지가격을 조정하기 힘들다면, 한 가지 대책으로서,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민과 가난한 젊은 귀농인을 농촌공사에서 중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농촌공사가 농지나 농기계를 매입하여, 젊은 귀농인들에게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지정토론자: 오성섭(예비 귀촌인)

- 부모님께서 경남 함양에 사과 과수원(8,000평)을 20년 정도 경영하고 있으며,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5년 전부터 주말에 내려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농어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엘리트 귀농대학을 수료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농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어떤 것이 정답이고 기준인지 알 길이 없었는데, 엘리트 귀농대학을 통해서 재배에 있어 어떤 것이 정답이고, 기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는 천안연암대학을 통해 인턴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턴제도의 연령이 44세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원자의 70~80%가 은퇴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초반 분들이 대다수이며,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로써 볼 때, 지원내용은 축소하더라도 인턴제도 연령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시켜주기를 바랍니다.

- 저희 과수원에서 함께 엘리트 귀농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인턴으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변에 동일 품목으로 과수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농업의 현실은 부부가 거의 모든 노동력을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력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자체가 얼마 없어 타 시도까지 인력이 오가는 상황이라 인건비가 비쌉니다. 특히 일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인력비용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턴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이 없이 인턴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턴에게 월 1~2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농가는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턴을 활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일부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점 중 큰 부분이 거주의 문제입니다. 빈집활용과 관련하여, 과연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빈집을 수리하고 살고자 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5세대쯤 같이 모여살 수 있는 거주여건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정보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력 Pool이 조성되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지구입, 주택개선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일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농인들이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빠르지 않습니다. 즉 작목반을 통해 다양한 정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작목반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더불어 농산물 판로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면서부터 직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귀농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귀농인들로 하여금 농사만 잘 지으면 팔릴 수 있는 판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사과 작목반에서 50~60평의 저온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맡겨봤는데, 실제로 그곳에 저장되는 과수들은 작목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90% 이상이 도매업자들의 과수였습니다. 판로가 없다보니 발떼기로 도매업자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토론자: 조원희(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장)

-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조원희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상주로 낙향 온 낙향인입니다. 상주시 귀농센터는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상주가 귀농인 수가 가장 많은데, 현장에서 귀농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살아갈 집이 없다. ② 해볼 만한 농사가 없다. ③ 모든 것이 새 출발이다. ④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귀농인들에 인기 있는 지원사업은 귀농인턴사업, 빈집수리비 지원, 소득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입니다.
- 귀촌보다 귀농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현실과 따로 노는 귀농정책들이 있습니다.
- 그중 하나가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인데, 이는 일정 이상의 가구를 형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단위입니다. 즉, 농업농촌에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구입 등은 귀농인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농지규모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소농이 주를 이루는 귀

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 농업창업자금으로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해 상주에 귀농한 140가구 가운데 1-2가구 정도만이 대출을 받은 정도였습니다.
- 쓰레기봉투, 주민세 지원 등 항목만 많고 생색만 내는 사업들이 다수인데, 솔직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귀농이라는 것이 원체 복잡해서 지자체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 ‘귀촌정보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연 5천만 원이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해주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매칭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귀농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교(현지인과 귀농인들 사이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귀농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귀농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①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매뉴얼의 분리, ② 귀농 새내기, 귀농 정착기 등으로 구분한 단계적인 교육, ③ 이론보다는 현장과 실습형 교육의 요구, ④ 현지인들과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릴 말이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던 귀농인턴, 빈집수리비 제도 등과 같이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책들이 최근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농어촌뉴타운조성,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이 농지 일자리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다섯 가구 정도의 소규모 정주공간 개발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시다만, 이와 더불어 그 귀농가구들 사이에 반드시 한 가구는 현지주민들이 함께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여 마을 공동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사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농촌형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귀농인에 대하여 마을에서 배타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합적인 것인 것입시다만, 일단은 마을 입장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이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실제로 귀농·귀촌인이 많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각종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의 경직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운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자: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장)

- 저도 10년 전에 반농반업으로 잠깐 안동으로 귀농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안동으로 내려가 일하고 일요일 날 다시 복귀했습니다. 중고차의 라이트를 꺼놓고 새벽 3시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때 깨달은 것이 “농사를 죽기 살기로 하면 진짜 죽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유학 후 대학으로 들어와 귀농센터를 운영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역할과 인식, 중앙정부의 역할, 귀농인의 자세 등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 일을 계속하면서 느낀 것은 귀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귀농인들은 중앙정부로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귀농합니다. 그러한 만큼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 잘한다고 소문난 지자체들조차도

귀농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언젠가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귀농인 한 사람이 오면, 관련된 행정수요를 위해 4명의 공무원이 힘을 써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더군요.

- 2009년 농식품부가 귀농·귀촌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기존 농민들도 힘든 상황인데 귀농인들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자금지원사항은 기존 농민에 대한 것과 동일했으며, 다만 일정부분을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칸막이를 사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군수가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면, 현지인들은 “귀농인들과 군수 얼마나 계속할지 두고 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귀농인교육을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되고, 지역에 있는 지역 주체들을 대상으로 귀농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농촌에 가면 75세 정도 된 분들이 마을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농촌후계자구도가 무너진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지역에 있는 농업인, 공무원, 농협, 전후방산업 종사자들이 귀농인들을 내 파이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지 또는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선불리 귀농정책 자금을 투입하면 귀농인이 정착하는 데 있어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귀농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더 확장하여 공무원, 농협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의 주체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2006년 농식품부가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함께 ‘농업경영혁신시리즈’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중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책에 실린 농가 중 자신이 귀농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3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 즉, 귀농인은 단순한 생산인력의 수급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뒤에 그 지역의 혁신농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귀농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장기간 귀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안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기존 은퇴 농업인의 농지 및 농기계 등 자원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이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서 경영력, 기술력, 주민친화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는 이를 현재 가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분할 상환 가능).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귀농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귀농에 성공하고, 지역으로서는 지역농업에 피해없이 신진인력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 토론자: 최혁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2~3시간 귀농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농촌의 토지이용에 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세미나가 귀농·귀촌 관련 세미나이니,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얼마 전까지도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즉 농촌의 활용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농촌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쓰면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공간은 다원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귀농·귀촌 논의가 농정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정책 입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들 귀농으로 초점 맞추어서 생각하는데, 저는 귀촌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보다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귀농과 귀촌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여유라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들이 귀촌을 계획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정도가 귀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귀농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촌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귀촌인에 대하여 귀한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귀촌이 귀농을 압도할 가능성이 훨씬 큼니다. 이제 귀촌인들이 만들어 낼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서 정책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하는 시책들은 귀농·귀촌의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뉴타운계획도 귀농을 대상으로 하는지, 귀촌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주택 역시 귀농인과 귀촌인이 형태와 입지 등 많은 부분이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귀농인들은 현지인들과 섞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귀촌인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에 따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젊은층이 애초에 왜 이농을 했는지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어촌 서비스기준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소 서비스기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귀촌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촌인들은 의료, 문화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지역응급센터가 농촌에 없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러한 농촌으로 가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응급센터가 있는 대도시 인근의 농촌으로 몰릴 것입니다.

- 또한 은퇴하는 도시민들이 귀촌을 위한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귀촌인들이 땅 매입하는 것을 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촌에 살기 위해 농지를 사고 집을 짓는 것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농촌에 살면서 낼 수 있는 각종 세금들은 지자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항도 이들의 귀촌을 장려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가더라도, 이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개발 가능한 유휴농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유휴농지에 대한 정보가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귀촌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농촌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허한 자세로 상생정신을 가져야 하며, 현지인들은 귀촌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이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토론자: 김종구(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최혁재 박사님 말씀처럼 귀농과 귀촌을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를 경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도만 해도 귀농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2010년도에는 연령대가 50대가 36%, 40대가 30% 정도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귀농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과 지원센터들이 생겨났고, 대학에서 귀농학과를 만들겠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편으로 우선 귀농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게 기존의 체계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의 빈집활용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차가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다수의 빈집들은 폐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농촌에 지은 집들은 거의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빈집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협동하여, 빈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에서 귀농교육, 도시농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농업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농지은행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자체의 목적이 기존 농업의 규모화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다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귀촌은 이제 귀농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귀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로 3만 이상 귀농·귀촌인이 농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도시 인근지역, 즉 울주, 달성, 당진, 서산, 평택 등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자금지원까지 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그 효과가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그러므로 은퇴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인력의 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에 들어온 삼성공장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서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 실업자 1명이 도시와 농촌에 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있었다면 정책 활용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KREI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1월 3~5일에 SETEC에서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정 토론자: 박선우(지역발전위원회 과장)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근무하지만, 이곳은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 귀농·귀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시골로 가고는 싶은데, 농사도 지어야 하나?” 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농촌 이주의 의사는 있으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동안 혁신도시 등 다수의 지역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SOC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고, 지역에 인재를 유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위에서 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귀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아도, 기존의 정책이 도시민의 유치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유치된 사람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형성해가는 부분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귀촌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귀농가구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만, 귀촌가구는 아직 사례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귀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그동안 간과되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촌 관련 정책들은 실제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수요자인 귀농희망자들은 대부분 도시민입니다.
- 서울 등 도시에서 귀농교육 등이 활발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분리되어서 이루어지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귀농의사가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의 관심과 궁극적으로는 귀촌운동이 사회적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중앙정부의 경우 각 부처가 모여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영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지금까지 한 분씩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토론자 가운데 시간 상 못 다한 말씀이 있는 분들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정 토론자: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장)

- 귀농이든 귀촌이든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평가사업 등에 있어 3년 동안 신규인력의 진입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활력사업 심사위원으로 가보면, 해당지역에 현수막만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주민 수백 명이 나와서 박수까지 칠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지자체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방법은 추가적인 예산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만드는 귀농·귀촌 정책은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로의 전달 과정에서도 그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례로 제가 농식품부에 제안을 하여 만들어진 ‘귀농인의 집’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앙정부 정책의 정확한 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용할 만한 빈집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대여를 해주어도 월 5~10만 원은 받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이 ‘귀농인의 집’입니다. 귀농운동본부에 피산에 사시는 어떤 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농식품부에 제안을 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교육생을현장 실습을 보내는데, 차광주씨가 친구로부터 받은 그 빈집을

괴산군청의 소개로 귀농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때 수도세와 전기세만 내고 살아도 좋으며, 단 6개월까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 가구가 7~8가구입니다.

- 그래서 만든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이 유지비만을 내며,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리는 공무원 조직에서 힘들기 때문에, 귀농인협의회 등에 경상비 등 지원을 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의 귀농인의 집이 지자체에 가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플로어: 추동규(농어촌 공사 총주제천단양 지사, 농지은행 팀)

- 귀농·귀촌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보다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귀농·귀촌 박람회와 관련하여, 귀농·귀촌 서약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 이후에 농촌에서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붐을 사회지도층에서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경우, 말년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그곳에 장지를 선택했는데, 그의 생가를 보기 위해 하루에 300~400명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하고 있는 정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주도로 가칭 농어촌협력단과 같은 인재뱅크를 만들고, 농촌에 필요한 인력이 생길 경우, 이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촌에는 농촌에 살 사람만큼, 도시민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농촌 빈집활용의 경우도, “귀농인의 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귀농·귀촌하여 1~2년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 만약 적응이 된다면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게끔 도와주고, 적응이 안 된다면 역귀농하게끔 알선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농어촌 뉴타운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사람들이 귀농하기 위하여 당장 1~2억 원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어촌공사의 분양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를 분양이 아니라, 임대체제로 전환하여 도시민들에게 일단은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어: 고흥록(전남 강진군 인력육성계장)

- 저는 귀농·귀촌 업무를 IMF 당시 2년, 최근에 3년해서 5년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귀농인 자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IMF 당시 귀농했던 분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전업농, 선도농가들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인력들을 살펴보면 생각지 못할 정도로 우수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러한 분들의 경우 한 사람이 오면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무엇보다 인구확대에 목적이 있기에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장과 업무 담당자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이 설 때까지 먼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이환의(충남 홍성군 귀농인)

- 귀농인과 마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기금조성을 통하여 귀농인과 마을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 과거에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던 농촌의 애경사가 지금은 거의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마을기금조성을 통하여 귀농인에게는 귀농축하금(실제로는 집들이 비용), 마을에는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귀농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차후 정착하여 도움이 되는 결과 외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하금 50만 원,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지인들의 경우 응급상황이 필요할 경우, 119에 전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 이동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 앞서 말씀하신 의료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를 통하여 많은 증진이 되었습니다만, 생활하면서 보니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농촌의 노인분들의 경우 119에 신고하기를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로 도움을 구합니다. 이동진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귀농인들, 면단위 의용소방단에 위탁운용을 통하여 제공하고, 차후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는 도시에 있는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차량이 있는 귀농인에게 동반을 부탁하고 이에 대해 월 어느정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숙박형 귀농인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귀농인의 집 외에,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가에서 숙박하는 프로그램인데, 기간은 1주일 이상 자율적으로 정하고, 주택은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발표자: 박시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몇 번 제목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부처, 특히 농식품부가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귀촌의 경우 정책 외에도 다른 측면, 즉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유상오(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

- 저 또한 사회적 붐을 일으키는 것이 향후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 및 공공,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화롭게 엮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구 과장님께서 11월에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를 계획하시는데, 올해가 귀농·귀촌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50년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시간이었다면, 2011년은 새롭게 나눔과 화합, 다원화로 가는 사회적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귀농·귀촌 서약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큼니다. 지난 2006년 서약의 경우 전 박홍수 장관이 제일 먼저 서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장: 정영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굉장히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국가의 특성이 생겨나고 농촌공간은 거의 무시되거나 활용이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국토공간에 인구와 산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사회적 비용 및 수익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 농촌사회에 초점을 두면, 농촌사회의 성격을 탈바꿈시키는 문제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사회가 농민들만 모여 살아가는 곳이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에서는 농촌인구 중 농가 인구는 20%가 채 안됩니다.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야만 농촌사회가 근대화되고, 사람이 모이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귀촌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찾을 수 있는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촌이 변하고, 귀농·귀촌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귀촌과 귀농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며, 나아가 귀농은 귀촌의 일부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농촌은 농업이 중심산업인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복원 등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선우 과장이 통합적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넘어서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을 모두 포괄하여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지원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 탄력성, 정보 등을 통합운영하여 국민운동과 같은 캠페인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오늘 2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일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료 D316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
발 행 2011. 12. .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